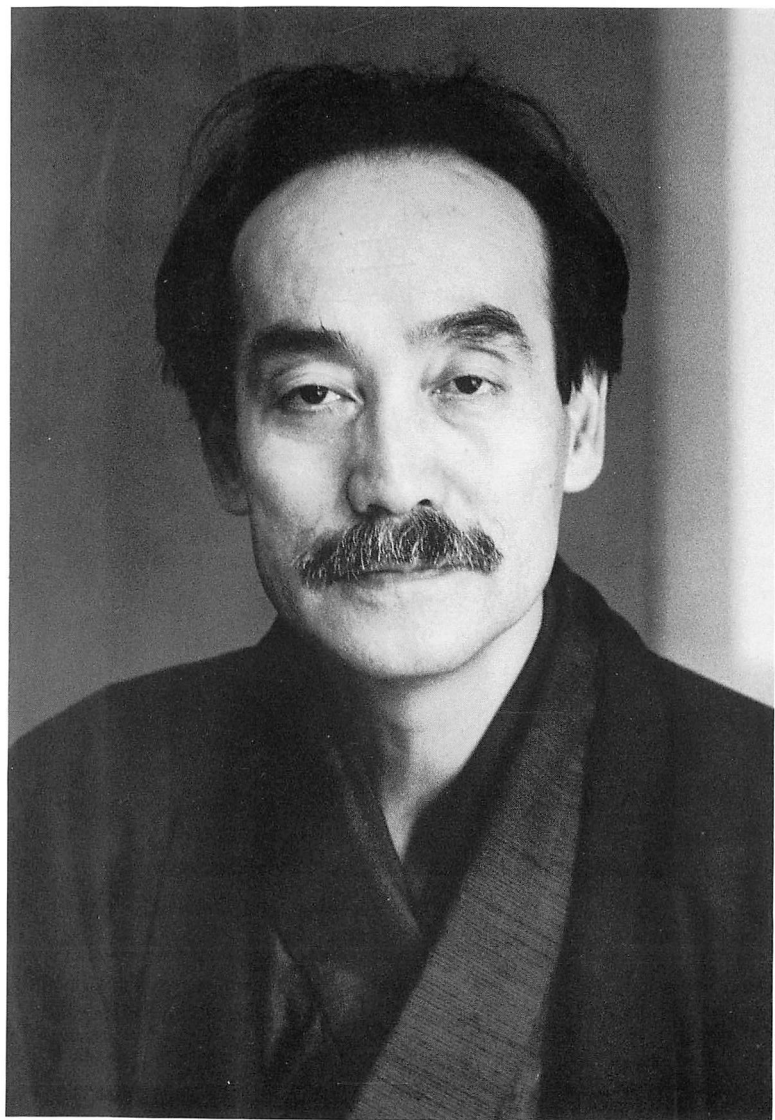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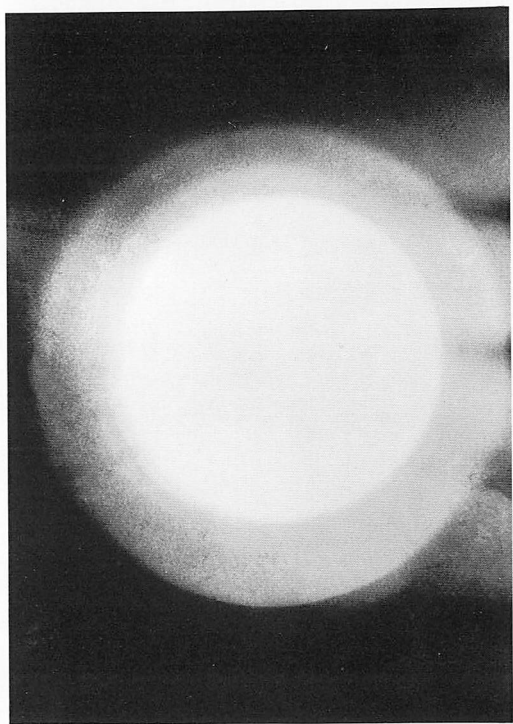
神 과 人 間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지름길

五 井 昌 久 著
林 鶴 凡 編訳



著 者



위 사진은 나의 집 앞에 서 계신 五井 선생님을 내가 찍은 것인데, 육체는 없고 광체(光體)만이 나타나 있다.

이 광체(光體)는 영(靈), 유(幽), 육(肉)의 삼체(三體)로서 3개의 원형으로 보인다. 중앙의 빛이 영체(靈體)이다. 여기서부터 광파(光波)가 나와서 유체와 육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보는 사람에 따라 원광(圓光) 안에,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보인다고들 말한다.

島田重光

소개 말씀

나는 약 10년전에 이 책의 원저(原著)를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되었다. 내가 세월을 거듭하여 이미 이순(耳順)에 이르는 동안, 비록 생애(生涯)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교신앙심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짧지 않은 근 40년 동안 갖가지 종교를 이 종교 저종단으로 편력(遍歷)하여 왔다. 그것은 그들 종교신앙으로부터는 내가 갈구(渴求)하는 "진짜"를 찾지 못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방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책의 원서를 읽게 되어 내가 갈구해 왔던, 그리고 마음 놓고 전탁(全托)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이제야 찾게 되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논리(論理)를 더욱 확고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 책 이외에도 저자(著者)가 세상에 내놓고 있는 다른 20여권의 단행본(單行本)과 월간지(月刊誌)를 계속 읽어 본 결과, "이 길 밖에는 없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상근(上根)의 사람에게도, 하근(下根)의 사

람에게도, 그 기근(機根)의 여하(如何)를 막론하고, 또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찾음과 동시에, 현재 직면(直面)하고 있는 인류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참된 세계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내가 원저자(原著者)의 승인을 얻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연유(緣由)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더우기 거의 육체생명을 마치기 이전에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할 때, 저자에게, 그리고 이 기연(奇緣)을 맺어 주신 분들에게 충심으로 합장감사를 아니 드릴 수 없는 심정이다.

35년전에 이 책의 초판이 나왔는데, 그 동안 판을 거듭하여 지금은 51판이나 나와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세상에 커다란 선풍(施風)을 일으켜 왔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 책의 내용인 즉, 인간이 자기의 본체(本体)를 깨닫고 신불(神佛)과 똑바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안혼미(不安混迷)의 경지(境地)에서 벗어나 참된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세계에 도달하고 나아가서는 틀림 없이 세계평화를 구가(謳

歌)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역설(力說)하고 신불(神佛), 영(靈), 인간(人間), 업(業), 인연(因緣)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으며, 문답편(問答篇)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이 충분히 독자의 심금(心琴)을 울려 놓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강호제현(江湖諸賢)에게 감히 일독(一讀)을 권해 드리는 바이다.

1988년 1월 일

번역자 林 鶴 凡 識

서 문

하늘과 땅을 잇는 한 가닥 줄이 되고자 하는 일
념으로, 이 생명 불태우리
하늘의 이상(理想)을 땅의 현실로
천국 정토를 지상계에
완전평화, 완전법열의 세계를 실현케 하는
조그만 일역(一役)이라도 담당하였으면……
이러한 갈망이 기도와 행동으로 옮겨져서 줄곳
생명을 불태우고 있었던 내가
오로지 신불(神佛)만을 생각하고
두 손 모아 일편단심
신불에의 전탁(全托)으로 마음이 깊어지고
고요해져서
이윽고 천지의 울려 퍼짐에 따라
바다가 명동(鳴動)될 때
태양은 솟아 오른다.

이렇듯 천지일체, 신불아일체(神佛我一体), 공즉실상

(空即實相)의 완전 조화된 심경에 도달하여 모두를 버리고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자기로 거듭 태어나 있을 때, 이 지상 세계의 업인(業因)은 격렬한 업연(業緣) 탓으로, 마침내 제 2차 대전의 발발, 대전의 종결, 제 3차 대전에로의 냉전등으로 차츰 인류 파멸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성서의 예언처럼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인가? 인류의 태반이 파멸할 시기가 박두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 사회, 세계인류를 휘몰아치는 인연 업화(因緣業火) 앞에 개인간의 조화, 세계 평화에의 바램은 부질 없는 것일까?

하늘에 계신 신(神)은 과연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현재 인류의 대부분은 이러한 불안에 떨며 내일의 희망도 잃어 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이 때에 즈음하여 나는 인간이 자기의 본체를 깨달아 신불(神佛)에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인류는 그와 같은 불안·혼미의 경계를 벗어나 참된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불(神佛), 영(靈),

인간, 업(業), 인연(因緣) 등에 대하여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1948년 3월

저자 지음

차 례

역자 소개 말씀	1
저자 서문	5
1. 머리말	11
2. 신불(神佛)과 인간과의 관계	15
3. 실재계(實在界), 영계(靈界), 유계(幽界), 육체계(肉體界)	22
4. 수호신(守護神), 수호령(守護靈)	31
5. 인연인과(因緣因果)를 초월하는 법	41
6. 올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	63
7. 나의 기념법(祈念法)	88
8. 맺음(結語)	102
9. 문답편(問答篇)	108
(1) 인간의 탄생에 대하여	108
(2) 산아제한(産兒制限)에 대하여	112
(3) 인간의 일생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114
(4) 전생(轉生)하는 사람과 재생하지 않는 사람 과의 차이	116
(5) 이성(異性)으로 전생(轉生)할 수 있는가	117
(6)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118

- (7) 독경(讀經)은 참으로 영혼으로 하여금 깨
닫게 할 수 있는가120
- (8) 무한공급(無限供給)을 얻으려면121
- (9) 동물령(動物靈)이 빙의(憑依)한다는 것은 사
실인가122
- (10) 애 각국, 각인종으로 갈라져 있는가125
- (11) 신불사(神佛事)의 호오(好惡)에 대하여127
- (12) 유체(幽體)는 어떠한 역할(役割)을 하는가 ...128
- (13) 예수교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불교에서
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은130
- (14) 사랑(慈愛)과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하는데
도, 왜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는가133
- (15) 의학(醫學)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疾病)
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135
- (16) 성명(姓名)을 바꿈으로 해서 운명이 달라지거
나 방위(方位)를 바꿈으로써 행복하게 될 수
있는가137
- (17) 평상시의 마음가짐에 대하여142
- (18)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욕정을 품은자는 이
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이것이 진
실이라면 청년이상의 사람중에 간음을 하지

많은 남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 점 에 대한 의견은	143
(19) 이름만 들어도 성격과 생사(生死), 그 밖의 운명을 알아 낼 수 있다는데	145
(20) 실물(失物), 도난(盜難)을 당한 경우, 그 범 인을 지적하는 행자(行者)	151
(21) 영매(靈媒)는 참으로 망인(亡人)의 말을 들 려 주는가	153
(22) 자살자(自殺者)에게는 수호의 신령이 따르 지 않는가	155
(23) 정화(淨化)를 해 받으면, 왜 병이나 운명이 호전되는가	159
(24) 어떠한 질병이라도 신앙으로 고쳐지는가	165
(25) 신앙을 하면 장사가 번창하게 되는가	167
(26)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무신앙자(無信仰者)에 게 행복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170
(27) 하느님(하나님)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175
(28) 죽음을 겁(怯) 내지 않게 하려면	180
(29) 사진만으로도 정화(淨化)가 가능하다는데	183
(30) 왜 이 세상에 악(惡)과 불행이 생기는 것 일까	186
(附) 세계평화의 기념(祈念)	190

1. 머 리 말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항상 공포, 약탈, 슬픔, 가난, 질병, 애별이고(愛別離苦) 등이 없는 완전원만한 평화를 희구 갈망(希求渴望)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들의 열망은 마침내 석가(釋迦), 예수를 비롯한 대성각자(大聖覺者)와 위대한 예술가, 사상가, 정치가, 학자, 발명가 등등 종횡(縱橫)으로 구세의 인재들을 배출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현대야말로 문명문화의 꽃이 활짝 핀 세계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문명문화의 세대에 이르렀는데도, 이 현대 세계의 사람들은 여전히 투쟁, 침략, 공포, 비애, 노병빈고(老病貧苦), 별리(別離)등등 완전평화에서 멀리 떨어진 불안정한 생활 상태에서 빚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는 말인가? 겉으로만 볼 때에는 고대와 현대와의 상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현재의 문명개화는 우리들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하고 있다.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현대인들은 천국정도에서 생활하는 행복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상태의 진화는 확실히 육체적 활동을 용이케 하고, 안락감을 주고는 있다. 그러나 그런 따위 안락감만으로는 인류세계가 안고 있는 정신적 불안을 씻어 없앨 수는 없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정신적 불안을 나날이 겪어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비문명의 시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생활상 필요로 하는 갖가지 문명의 이기(利器)는 금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현대의 생활이건만, 정신문명은 어찌하여 비문명시대와 거의 다름없는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인간을 두는 것일까?

그것은 현대의 생활도 고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기반을 갖지 못한 생활이며, 언제 어디서 순식간에 허물어질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생활이기 때문인 것이다. 전쟁, 천재지변, 병고, 그리고 생활의 불평 등등, 더구나 가장 근본적인 육체멸망에 대한 공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아무리 표면적인 생활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좀처럼 인류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불안과 고통의 소멸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나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선성(先聖) 석가, 예수는 그러한 제고(諸苦)를 초월하여 스스로의 체험으로써 제자들을 교도(教導)했으며, 제자들은 그 진리를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여 그것이 불전이 되고 성서가 되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계의 광명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왔던 것이다. 성서, 불전에는 인류구제의 원리가 실려 있으므로 그 설법 그대로만 모든 인류가 수행한다면 반드시 지상천국이 실현되는데도, 불행하게도 인류는 그 교전을 다만 정신의 양식으로만 삼았을 뿐, 행(行)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거의 모두가 두 성자의 진의를 해득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들 성자가 끼친 영향은 아직도 인류의 마음의 밑바닥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차츰 강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다.

인류의 업인(業因)은 이제 바야흐로 크게 파괴(自壞)하고 진리의 광명이 찬란하게 방사(放射)하기 시작하고 있다. 진리 즉 신불에 이어진 자는 남으며,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하는 성자의 말씀의 실현을 눈 앞에 두고 나는 신불과 인간과의 관계, 영

(靈), 혼백(魂魄), 생전(生前), 사후(死後)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간생활의 올바른 자세, 행복한 생활을 위한 참된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자세히 엮어 나가기로 한다.

2. 신불(神佛)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명백히 이러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자칫 아무런 생각 없이 넘겨 버리기 쉬운 이 물음이야말로 인간세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가장 어려운 답인 것이다. 인간이란 어떠한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며, 대다수의 인간이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 바로 인류는 구제되어 지상천국의 실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술한 철인(哲人), 종교가들이 이 문제에 파고 들어, 혹은 100% 이 문제를 해명해 내어 각자(覺者)가 되었거나, 혹은 반지반각(半知半覺) 정도의 학자가 되었거나, 혹은 완전한 오해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육체생명을 끊었거나, 혹은 유물사상가(唯物思想家), 유물행동가(唯物行動家)가 되어 세계를 더

육 혼란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듯, 인간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 자고로 매우 근소 했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혼미를 거듭해 왔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우선,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관에 대한 나의 소신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본론을 펴 보고자 한다. 神佛은 이자동의(異字同意)이다. 그러므로 이하 神 또는 佛의 일자(一字)로만 표현한 경우에도 신불(神佛)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해(理解)하기 바란다……(편역자 註).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내에 생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는 천국에의 계단을 한 발 내어딛고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영이 주(主)이며, 육체는 종(從)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같은 계단을 두 세 걸음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자로서 어디까지나 신의 종(奴僕)이다—라고 생각하며 사사건건 신의 심판을 두려워 하면서도, 그러나 언행을 삼가고 전적으로 신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참된 인간관에서 볼 때는 아직도 요원(遼遠)하지만, 남을 손

상하지 않는 경우는 천국의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피조자(被造者)이지만, 신은 사랑(慈愛)이므로 애행(愛行)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결코 자기에게 불행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천국의 계단을 오르고 있다.

신불이나 영에 관하여 특별히 이렇다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오로지 소박하고 청순한 밝은 마음으로 애타행(愛他行)을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천국에 오를 수 있다.

육체계 이외의 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순박한 마음으로 애타행을 하고 계다가 신불의 존재를 믿음과 동시에 이 지상세계가 반드시 광명화(光明化)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의 주민이다.

인간은 영이며, 육체는 그 하나의 현현(顯現)이지, 인간 그 자체는 아니다, 인간이란 신불의 생명의 법칙을 자유로이 적용하여 이 현상세계에 형상상(形象上)의 창조를 이룩해 가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각자(覺者)이며 자유자재심의 소유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個)의 육체를 가지면서 스스로가 영(靈) 그 자체임을 자

각하고 그 영은 신불 그 자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불아일체관(神佛我一体觀), 자타일체관(自他一体觀)을 행동으로써 표현해 가는 사람——예컨대 불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참된 인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불을 안다고 하는 것과도 같다. 아무리 신불 운운하면서 신불을 좇아 다니더라도 그 사람의 언행에 사랑과 진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인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다.

인간이 존귀(尊貴)하다는 것은 그 육체가 위대하기 때문인 것도 아니며, 육체의 지식이 남달리 빼어나 있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육체의 지식이 많은 것도 좋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도 인간의 본성, 영적 지혜(靈的智惠), 이른 바 신불지(神佛智)를 그 근본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도리어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 유물론자(唯物論者)의 행동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치밀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회를 불온(不穩)하게 하고 세계정세를 불안동요로 몰아 넣는 것은 신불지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다.

옛날의 내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거의 모

두가 인간은 육체 그 자체이며 정신이란 육체안에 존재하는 어떤 기능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이란 60년, 70년,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다가 마침내는 재(灰)로 되고 무(無)로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인간은 육체의 소멸이 최후의 종지부(終止符)로 되는 것일까? 나는 즉석에서 “아니” 라고 대답한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육체를 유지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를 생육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죽어 간다. 인류의 태반은 이와같은 생활을 되풀이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막연한 불안같은 것이 크고 작고 간에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이러한 삶은 너무나도 삭막하며 무의미하다. 이러한 삶 외에 무엇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모르면서도 또 그것을 알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태로 살아 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개중의 극히 소수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되겠다면서 사회개혁에 나

서기도 하고, 사상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의 소수인은 자기자신의 마음의 내면에 깊이 파고 들어 신불을 알고 영을 알게 된다. 이들 모두가 마음의 번뇌와 괴로움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대중(大衆)은 흐르고 있다. 시간의 유동과 더불어 인류업생(人類業生)의 격렬한 소용돌이 속을 좌로 우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희노애락, 소용돌이를 붙잡은들 그 무엇에 쓰겠는가? 그것이 그지없는 환희처럼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소용돌이는 허무하게 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형상을 갖춘 것, 그것은 형상 없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형상 있는 것이 형상 있는 그대로만 보인대서야 어찌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 형상 있는 것의 형상만을 바꾸어서 사회개혁을 실현한들 인류는 구제되지 않는다. 형상, 타입(型), 조직, 제도…… 등 형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만 고착된 눈을 가진 사상(思想)은 인류를 멸망케 하는 것이 고작이지, 결코 구제할 수는 없다.

인간이란 육체뿐만은 아니다. 신불 즉 우주에 편만(遍滿)한 생명이, 그 창조하려는 힘이, 개개의 인격으

로 갈라진 것이 인간이며, 더욱 옆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면서, 주어진 힘을 종횡으로 자유무애(自由無礙)하게 발휘하여, 현상세계에 완전원만한 신불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명을 지닌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 신불이란 우주에 편만하는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이며, 인간이란 신불의 생명을 현상세계에 활동케 하는 사명을 가진 신불의 소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신불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각(知覺)할 수 있다면 이 현상세계의 어떠한 변동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하 각장에 걸쳐 될 수 있는대로 자세히 이 관계를 엮어 보기로 한다.

3. 실재계(實在界) · 영계(靈界) 유계(幽界) · 육체계(肉體界)

전장(前章)에서는 총괄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인간에 관한 설명을 해 두었는데, 이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일부 종교가는 인간의 업생설(業生說), 인연설(因緣說)을 내세워, 인간은 항상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연인과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여기서 명백하게 인간은 본래 업생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인간이 업생이라면 인간은 영원히 윤회전생(輪廻轉生)하지 아니하면 안 되며, 고락혼합(苦樂混合), 아니 괴로움이 더 많은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좀처럼 구원 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이 과연 업생이라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부터 매우 불행하며, 신불의 존재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현상세계는 확실히 인연인파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신에 대한 강한 동경, 불에 대한 사모를 생각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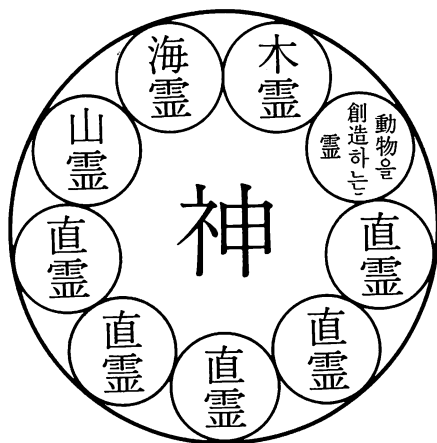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밝은 광명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인간의 영성(靈性)을 깊이 추구하여 인간과 신불은 일체(一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불의 소생이며 신불자체로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래에 내가 영각(靈覺)으로 깨달은 인간의 발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본래 신불에서부터 방사된 빛(光)이다. 빛은 곧 마음이다. 신불은 전부의 전부이며, 무한의 지혜, 무한의 사랑(慈愛), 무한의 생명이지만 신불이 신불 그대로의 상태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현상세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무한(無限)이 그냥 그대로 움직여 봤자, 무한은 언제까지나 무한일 뿐, 유한(有限)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가 아무리 움직여도 역시 하나인 것이다. 무한이 몇개의 유한이 되고 그 하나가 자기분열(自己分裂)하여 둘이 되고 넷이 되지 않으면 현상의 세계는 창조되지 않는다.

이 빛(光) 그 자체인 신불이, 어느 때 갑자기 그 통일(統一)하고 있었던 빛을 갖가지, 각양상(各樣相)으로 각기 다른 빛으로 하여 방사했다. 이때부터 신불의 창조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신은 맨처음에 천지를 만들고, 그 일부의 빛은 해령(海靈), 산령(山靈), 목령(木靈)이 되어 자연계를 창조하였으며, 그 일부

는 또 동물계를 창조하고, 최후의 일부의 빛은 직령(直靈)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인간계를 창조하였다.

(제 1 그림 참조)



제 1 그림

다시 말해서 신은 하나이자 다(多)이며, 일즉다신(一即多神)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직령 즉 신의 일부의 빛이야말로 내가 권두에서부터 설명한 바 있는 인간 자체이며,

이 때에는 아직 업인(業因)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직령이 움직여서 갖가지 광파를 방출하여 영계를 만들고, 거기에 각 분령이 소속하게 되었다. 또 각 분령은 직령으로부터 방사된 빛에 의해 그 창조력을 구사해서 유계를 만들고 육체계를 창조하여 어떤 때는 유체라고 하는 옷만을 입고 유계에서 생활하며, 또 어떤 때는 유체외에 또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육체계의 창조활동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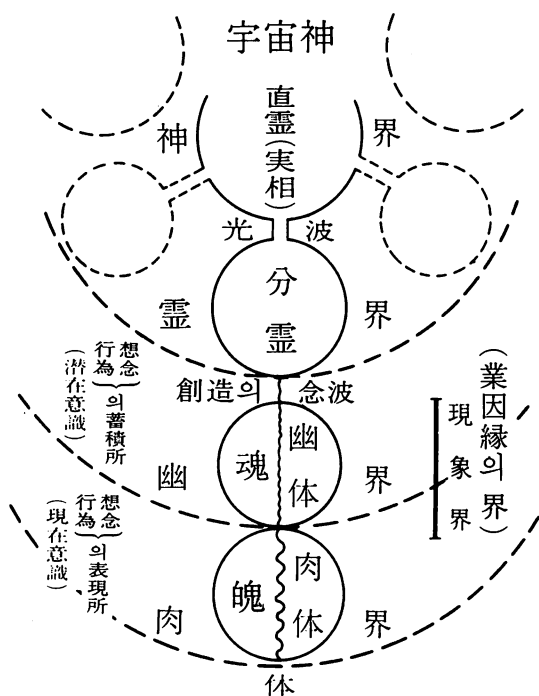
영체가 알맹이라면, 유체는 속옷이며 육체는 겉옷이다. 이들 삼체는 모두 빛의 파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육체는 그 광파가 매우 조잡(粗雜)하며 흐르는 속도도 더디고 그 무게도 무겁다.

분령은 정묘한 빛이며, 본래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파동을 갖고 있는 것인데도, 육체계에 출입하는 동안에 어언간 육체의 무던 움직임에 동화(同化)되어 차츰 그 정묘한 빛을 잃어 가게 되었다. 처음에 육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신의 창조를 형성하려고 활동을 계속해 왔던 각 분령은 마치 고치를 만들어 스스로가 그 속에 갇혀 버리게 된 번데기와 같은 상태로 되어 점점 그 광파가 탁해져 버린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은 맑고 흐름이 더딘 개천은 탁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인 것이다. 그리하여 각 분령은 자기들의 어버이인 직령에 향하는 마음이 소홀해져서, 그때까지 유체와 육체에 축적되어 있는 광파(念)에만 중점을 두고, 편하고 안일한 창조를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육체계의 생활을 주로 한 자기한정(自己限定)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분령이 그 창조의 시초에 일으켰던 상념(빛의 파동)은 신으로부터 이어받은 본

래인과(本來因果), 즉 진선(眞善)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육체계에 자기한정을 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생긴 상념이 업인으로 화하여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한정한 각 분령은 서로간의 부자유성을 해방하기 위해, 세로(縱)로 연결된 직령을 향하지 않고 가로(橫)로 이어지는 형제 자매인 분령혼으로부터 그 자유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즉 세로 치기를 하지 않고 가로 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체 및 육체에 축적된 상념(지식)과 완력(腕力)을 행사하면서 투쟁의 역사를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스스로가 저질러, 이젠 거의 완전히 유폐(幽閉)되어 버린 육체의 틈사이로 가끔 신의 얼굴을——그 광명을——언뜻 보고서는, 다시 말해서 축적되어 있는 상념 속에서 본래의 자기의 광명을 발견하고서는, 직령에 대하여 구원을 청하는 기원(祈願)의 절규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심의 시작인 것이다. 이제까지의 상태를 도해(圖解)하여 보기로 한다.(제 2 그림 참조)

제 2 그림과 같이 각 분령은 영계에 소속하면서 그 마음(念)으로써 각 유체를 창조하여 여기에 유계를 형성한다. 이 유체는 인간 각자의 · 마음이 기록되는 장소——업인연(業因緣)의 축적소이다. 여기에 축적된 기



록이랄지 기억이 육체의 두뇌에 떠올라서 생각(思考)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축적된 기억이나 기록을 잠재의식(潛在意識)이라 하며 두뇌에 떠오른 것을 현재의식(現在意識)이라 한다. 화(憤怒) 내지 않으려면서도 화를 내 버린다거나, 불행하지 않으려는데도 불행에 빠져 버리는 등등은 모두 잠재의식(유체, 유계)

으로부터의 의식의 흐름에 의한 현상인 것이다. 이 파동이 항상 전회(轉回)하여 불행의 염의 축적은 불행을 부르고 기쁨의 염의 축적은 기쁨을 부르는 따위로 수레바퀴처럼 전회해 가므로 이것을 업의 인연, 인과라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으로 미루고 다시 분령의 설명으로 되돌아 간다.

분령이 처음에 유체, 육체를 창조한 것은 신이 천지, 산, 바다, 초목을 창조하고, 동물의 창조를 관장(管掌)하는 신령이 동물을 창조했던 그 창조 과정이 영(靈), 유(幽), 물질……로 차례로 그 광파(光波)를 물질화해 갔던, 말하자면 에텔, 미립자(微粒子), 원자(原子<전자, 전자파>)……로 하여 갔던 것과 같은 원리로서, 직령이 각 분령에게 자기의 빛을 나눠 주어서 육체인간의 창조를 산령, 해령, 목령, 동물을 주장하는 영들과 협력해서 완성시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광파로 생성(生成)되고, 육체가 원자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자연계의 빙칙과는 범주를 달리한 똑같은 원리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산천초목이나 동물은 어디까지나 피조자(被造者)이며 자기의 식 내지 자아(自我)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창조자인 분령 그 자체가 육체에 깃들어 있으면서 끊임

임 없는 자기 창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부처님의 인신난득(人身難得)이라는 말씀은 바로 진리인 것이다. 동물은 신의 예속물(隸屬物)임에 반해, 인간은 신 그 자체인 분령이라는 사실, 본래 자유 자재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영(靈), 혼(魂), 백(魄)으로서三界에 활동하고 있는 분령은. 차츰 육체인(肉體人) 그 자체인 양 둔화하여 육체 외에 六관(직감), 직각(신지)의 쇠퇴를 보이기 시작하더니만, 마침내는 전부를 五관(五官)의 감각에만 의지하는 것이 습관화하여 五관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무턱대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분령의 활동은 분령 그 본래의 성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분령은 본래는 신에 있어 일체(一體)였다는 것을, 유체에 기록되고 기억되어 있는 의식을 초월해서 생각하게 되어, 육체에 있어서는 명백히 개개(個個)로 갈라져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간의 일을 생각하는 감정, 사랑(慈愛) 등은 소멸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랑의 좁은 범위의 작용은 어버이와 자녀, 부부, 형제 자매의 사이에서 볼 수 있으며, 널리는 인류사회의 범위에 미치고 있다. 사랑이야말로 신에 이어서

는 유일한 길이며, 빛이며, 또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는 오직 하나의 감정, 행위인 것이다.

분령은 물질의 세계, 형상의 세계에서 자기자신의 본래신(本來身)—빛(神佛)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의 밑바닥에서 솟아 오르는 인간 본래의 빛의 이념이 사랑의 생각으로 되고 행위로 되어서 겨우 그 빛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업인의 작용을 집착(執着)이라 하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인간의 생활을 행과 불행으로 갈라 놓고 있는 것이다.

4. 수호신(守護神), 수호령(守護靈)

전장에서 인간본래신불성(人間本來神佛性)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현실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은 과연 업의 윤회(輪廻)를 초월할 수 있는가, 초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본래성(本來性)은 아니지만, 한번 생긴 업인은 그것이 연(緣)이 되고 과(果)가 되고 또 인(因)을 만들고 연과 맺어져서 과로 되어서 끝 없이 전회하여 모든 현상은 업생의 세계로 되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분령이 육체의 인연 속에 유폐되어 버린 현재, 각 분령만의 힘으로 이 인연을 뛰어 넘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일단 일으킨 업은 반드시 그 출발점에 되돌아오는 법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발출(發出)한 생각, 즉 업인은 다시 돌아와서 과가 되는 따위로 인과의 파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그 층이 두터워져서, 드디어 육체아(肉體我)

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아성(牙城)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육체아는 조잡(粗雜)한 파동이 일고 있는 자아이며, 육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 자기와 남을 구별하곤 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우선 자기를 지키려는 의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무래도 다투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더구나 이 분령이 음양으로 분열하여 남녀로 되고, 또 육체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육체아는 자기와 자기 일족만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업인을 깊이 쌓아가게 되어, 이 업인의 틈 사이로 신의 빛이 비쳐 주지 않는 한, 인간은 본래의 신성(神性)을 영영 잃어 버리는 상태로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 신(직령)은 이것을 알아 차리고 분령의 구원을 위해 새로운 빛을 방사했던 것이다. 이것을 수호신(守護神)이라 부른다. 이 수호신의 빛에 의해 맨 처음에 유계, 육체계를 창조한 분령이 구원을 받게 되어 각기 자손의 수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을 수호령(守護靈<지배령·컨트롤이라고도 한다>)이라 부른다. 이 수호령 가운데에는 정(正)수호령과 부(副)수호령이 정해져 있다.

수호신은 항상 여러 수호령의 위에 있으면서 수

호령에게 힘을 도와주고 있다. 각 정 수호령은 각 육체인간마다에 전속(專屬)하여 그 주운(主運)을 지도하며, 부 수호령은 대개, 그가 맡은 사람의 업무에 관한 지도를 담당한다. 직감(直感)이라던가 인스피레이션이라던가 하는 것은 이들 수호령으로부터 오는 지도의 염파인 것이다. 이는 보통은 자연적 행위처럼 행해지는 것인데, 가령 무심코 어느 집을 방문했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또 문득 왼편으로 발을 옮긴 순간 자동차가 스쳐 지나가서 꿈쩍없이 당했구나 하는 찰나에 의외로 재난을 면했다거나 하는 따위로 일상다반사의 행위에서 수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조직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만은 아니며, 이와같은 복잡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육체의 생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태어나기 전에 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

이 두 문제는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해서도 대강은 이해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인연인과를 초월하고 신불성을 현현(顯

現)하는 길에 들어가기 쉬우리라 생각되므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태반은 “인간은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육체소멸에 의해 인간의 생활은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처럼 인간의 신불성을 은폐(隱蔽)하는 것은 없다.

육체가 죽으면 확실히 육체는 원형이 무너져서 재(灰)로 되어 버린다. 육체의 형상은 소멸되어 버린다. 육체인간의 눈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은 영원히 꺼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은 다시는 이 육체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육체가 소멸했다고 하는 것은 육체세포(肉體細胞)의 분리를 뜻한다. 육체는 몇 조(兆)나 되는 세포가 갖가지 요소를 중개(仲介)로 하여 조직체를 이룬 것이다. 바꿔 말한다면 분령으로부터 반사된 광파(念)가 우주의 물질요소와 결합하여 창조한 것으로서, 분령의 광파가 그들 물질요소에 작용을 하지않게 되면 이 조직체는 저절로 해체되어 버리는 것이다. 좀 더 단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사망은 분령이 겉옷인 육체를 벗은 것이 되며, 입을 사람이 없어진 겉옷은 이제 입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각(燒却)되어 버렸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입었던 사람마저 소멸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입었던 사람이자 실속(알맹이)인 분령이 속옷인 유체만을 입은 채, 띤 계층(界層)으로 전이(轉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진짜 주인인 인간은 사멸한 것이 아니라, 육체계를 떠났을 따름인 것이다. 나는 이 육체 요소를 백(魄)이라 부르고 있다.

육체를 떠난 분령은 어느 기간동안 유계에서 생활한다. 여기서의 생활은 육체계의 파동보다 미세(微細)한 파동의 세계에서 대체적으로 육체계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 세계는 생각한 것이 바로 나타나는 세계이며 육체계처럼 생각한 것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세계와는 다르다. 생각한 것이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매우 고마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조금도 고마워할 것이 없다. 어지간히 마음이 개운하게 정화되어 있지 않는 한, 오히려 매우 고생하게 된다. 왜냐 하면, 육체계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더라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만 있으면 좀처럼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며, 약간쯤 상대방을 속이더라도 바로는 알지 못하며, 한 평생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수도 있다. 그러나 유계에서는 회노애락의 감정은 모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며,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이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 증오(憎惡), 비애(悲哀), 공포(恐怖), 부정직(不正直)……, 이런 따위 상념은 모두 바로 고통의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육체계에서 일으켰던 갖가지 악상념, 악행위의 습관(업인연)은 모두 유체에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사후의 유계에 있어서도 역시 육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체험을 거쳐 업인연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번에는 좋은 인연을 가지고 육체계에 재생하여 이전보다 훌륭한 생활을 육체계에서 영위하게 되고, 높은 인격자로 향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인가 재생하여 악상념, 악습관을 교정하여 감으로써 마침내는 직령과 하나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 유계에서의 분령을 영혼이라 하며, 육체계에 있는 기간은 혼백이라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영이란, 신불이며 신불성이다. 그리고 혼백은 인연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분령은 영계에 본주(本住)하는 신불이면서도 이것이 인연세계로 내려와서는 혼백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으로서는 영(靈<神>)이므로 완전원만하며 영생하는 것이건만, 분령의 염파에서 생긴 업생

은 업인연으로 되어 유계, 육체계를 반복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른바 인간본래불성(人間本來佛性)이란, 아무리 업인연의 미로(迷路)에서 헤매이는 인간일지라도 그 실속(알맹이)은 모두 부처(佛)의 생명이라는 뜻이다. 나의 유(流)로 말한다면 분령의 빛이며, 직령의 빛이며, 우주신 그 자체의 빛(光人生命)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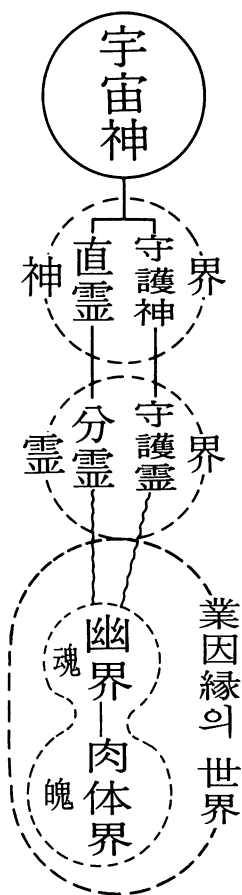
인간의 성(性)은 선이냐? 악이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性善說), 성악설(性惡說)로 논쟁을 거듭해 왔는데, 인간의 본래성에는 선도없고 악도 없다. 인간은 다만 무한의 빛(神)의 창조성을 행동에 옮겨 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로서, 악이라는 것도, 선이라는 것도, 전면적으로 신이 현상계에 나타나기까지에 구성되는 빛과 그림자의 교차인 것이다. 악(그림자)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 행동도 보다 큰 선(빛)을 나타내기 위한 일순(一瞬)이며, 선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 행동마저도 보다 위대한 모두를 포함한 선(빛)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의 일순인 것이다.

처음에 분령이 우주신의 창조를 현현하기 위해 그 창조성을 광선(光線)의 무늬로 하여 유계, 육체계를 창조하여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발출한 염파의 업

인 속에서 차츰 자기의 본성을 잃어 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장(前章)에서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그것은 얼핏 보기에 무한의 지혜의 소유자여야 할 신의 커다란 실책인양 느껴지며 그 점을 의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빛과 그림자, 선이 그냥 그대로 선이 아니며, 악이 그냥 그대로 악은 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마찬가지로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분령은 일단은 육체의 업인연(業因緣)속에 회롱당하여 자기의 본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직령이 분령에 명하여 우주신의 창조를 현상계에 나타내려고 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고뇌하고 있는 분령을 구원하고 육체계를 정화해서 우주신의 의지대로의 세계로 하는 것이 직령의 최초부터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각 직령은 자기의 빛을 나눠 주어서 분령들의 수호신으로 삼고, 수호신은 맨처음에 육체계의 창조에 참여했던 분령들을 업인연의 파동에서부터 구원해 주었다. 이 분령들은 수호령이 되어서 수호신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육체계에서 활동하는 후배의 분령들, 말하자면 자손들의 수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 3 그림

분령 중 경험이 많은 분령으로부터 차례로 수호령이 되어 마침내 한사람마다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수호령이 따르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 3 그림 참조)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투쟁, 끊임 없는 고뇌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 도 전쟁에 대한 공포, 노병, 빈고는 여전히 계속되려는 조짐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동안에도 여러가지로 인류에 공헌한 성자, 위인이 배출되었던 것은 분령인 인간이 수호신, 수호령의 활동을

깨닫고 이들과 협력하면서 활약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힘은 정신문화, 물질문명의 발전에 기여(寄与)한바 크며 앞으로도 수호신, 수호령과 분령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 이 세계는 참된 의미의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어디까지나 그 과정이며 이 단계를 거친 뒤의 미래에는 육체인간의 세계가 신의 계획대로의 완전조화된 광명세계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파멸의 직전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되며, 오로지 자기의 본분을 완수해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기도 구원 받고 세계도 구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그 날이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 마지 않는다.

5. 인연인과(因緣因果)를 초월하는 법

다음은 어떻게 하면 하루 바삐 업인연을 해탈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해탈하기 위하여 술한 난행고행(難行苦行)을 했던 옛날의 구도자(求道者)들은 그 의지에 있어 실로 위대한 바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현대인에게 그것을 바라고 싶지는 않다. 입산하고, 폭포수를 맞고, 단식을 하는 등의 행은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생활환경에서 볼 때, 극히 힘드는 일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할 수 없는 일이다.

업인연 즉 물질(육체를 포함)을 실재로 보고 있는 오류(誤謬)에서 오는 물욕, 색욕, 집착욕(執着欲), 이들 각종 욕망을 소멸해 버리기 위해, 육체에 고통을 주는 따위 고행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 밖에 없다.

나는 육체에 굳이 특별한 고통을 주지 않고도 주어진 생활 환경을 그냥 그대로 생활로서 행해 가는 보통 사람에게도 가능한 해탈의 길을 인도하고자

한다. 그것은 나 자신이 체험을 통해 이미 체득(體得)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깨달으려면 우선 욕심을 버려라” “당신은 성급(性急)하니 그 성급함을 없애면 된다”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이예요” 등등 따위로 매우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의 업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또 인간의 세계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다라는 마음(念)의 법칙을 현재만의 육체계의 마음으로 해석하고선,

“상대방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나쁘게 나타나는 것이예요, 끝까지 계속 상대방에게 예배하는 것이예요.”

“남편이 뭐라 말하던 당신은 어디까지나 온순하게 남편을 따르는 것이예요, 아무리 호되게 두들겨 맞더라도 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예요, 전부 당신의 마음의 그림자니까” 라던가, 또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 속에 쉬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되면 고쳐지는 것이예요” 라던가,

“불만의 마음으로 투덜대니까 부스럼이 생기는 것
이예요.”

“당신에게 남을 찌르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경통에
걸린 거예요.” 등등

모든 상념은 그 상념과 같은 형상을 나타낸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나타나고, 선을 생각하면 선이 나타
난다고 하는 마음의 법칙을 다만 남을 꾸짖고 비
판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교나 수양을 하
고 있는 사람들중에 매우 많다.

나는 이것은 실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계와 영계에서는 그 상념은 지체 없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므로 어
떠한 상념이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
인가를 체험으로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업인의 염을 소멸시키는 데는 여간 힘드는 것이 아
니다. 하물며, 매우 조잡한 파동체를 가진 육체세계
의 인간이 더우기 그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얽혀 있
는 업인연의 종류마저도 알지 못한채, 다만 단순히
마음의 법칙의 일반론만을 이용해서 지도하려고하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의 일이며, 도리어 상대방의 진
화를 방해하고 정화를 문란케 하는 결과가 된다.

나는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사랑은 전부를 치유한다”

“신은 사랑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들에게 주고 싶다.

자기의 공명심의 만족이나 지식에만 치우친 사랑 없는 사람들에 의한 인간지도처럼 역효과적인 것은 없다.

사랑이 깊은 사람만이 인간심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강조하고 싶다.

업인연은 과거세의 과거세로부터 끊임 없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 파동의 연속이다. 이 60년, 70년의 육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사람마다의 육체적 환경(질병·행 불행등)이 그동안의 2년이나 3년동안에 일으켰던 상념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마음의 소유자가 불행에 빠지게 되고, 어디에서 보더라도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예도 허다하다. 이러한 까닭에 간단하게 남을 책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저마다 각양각색의 인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A의 착한 삶을 B가 반드시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B가 무심코 할 수 있는 선행을 A도 그대로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자(一字), 일선(一線)에서마져 백인백양(百人百樣), 천인천태(千人千態)인 것이다. 다만 매우 흡사한 마음의 사람과 서로가 매우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상념의 유사(類似), 혹은 인연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것이 되는데, 가령, 이렇게 유익한 책을 그 사람은 왜 안 읽지? 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권하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저급시(低級視)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저급시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

바하나 베토벤의 곡은 실로 훌륭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의 음악엔 무지 하면서 유행가 요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다만 그것만의 이유로 경멸한다면 이것도 잘못이다.

현재 열심히 종교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이기심만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으며, 현재 종교에는 무관심인양 보이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 사랑에 불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형상의 세계에 나타나 있는 언동만으로 그 사람의 진가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의 경계(境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는 다음에 설명하는 원리, 법칙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 현계(現界)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빙글빙글 돌고 있으므로, 현재의식(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전부 그대로 잠재의식(유체에 속하는 마음)에 기록되며, 그 기록된 상념이 표면의 마음 즉 현재의식에 기억으로서 떠오르며, 또 어떤 때는 직접행동으로서 언동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나타난 언동이 다시 잠재의식에 녹음되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그 사람 그 사람의 운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하며, 그것을 아는 직후부터 유계, 육체계를 통해서 각인(各人)의 운명을 수정하고 있는 수호령의 구제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운명을 개선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보통, 인간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우주신의 마음을 비롯하여 직령(인간계에 있는 神)의 마음, 분령의 마음, 유체계의 마음, 육체계의 마음, 또 그밖에도 직령과 동위인 수호신의 마음, 게다가 각 개인 개인에 붙어서 항

상 비호하고 있는 수호령의 마음 등 7 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수호령에게 솔직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에게도 솔직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진보를 크게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람의 진보는 단순한 정신분석이나 마음의 법칙의 그릇된 이용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정신분석이나 마음의 법칙은 커녕, 신도 볼 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육체의 자아(自我)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 이 세상에서 진정 청순하고 소박한 자기가 되는 데에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할것 없이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이지만, 좀처럼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 행복을 얻는 비결은 순박한데 있다. 순박이란 육체인간에게 순박하라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순박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한다면 신에게 순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불이라 하면 어쩐지 먼 거리감이 들며 파악하기 힘든 느낌을 주기 때문에 수호령에게 순박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호령이란 대개 조상의 영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의 배후에 계시면서 영의 눈으로 영의 귀

로 자손인 자기의 운명을 예견(予見)하여, 나쁜 운명으로부터 좋은 운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길을 인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육체의 부모는 그 자녀의 1분후의 운명도 알아 낼 도리가 없지만, 수호령은 그 자손의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자손의 운명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

개인의 운명이란 먼저 각자의 상념이 유체에 기록되어 그 기록된 상념을 현계에 실현시킬 갖가지 재료(材料<환경>)가 저절로 정리되어서 유계에 일단 그 원형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을 거쳐 육체계의 상념이 연(緣)으로 되어 가지고 이 유계의 운명이 그 사람의 현실 환경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 때, 수호령의 수정(修正)이 없으면 그 상념의 잘못은 그릇된 그대로 현계의 운명으로 나타난다. 수호령을 일단 고려(考慮)밖에 두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상념 대로의 환경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정화된 상념을 가진 사람은 정화된 환경을, 더러운 상념의 사람은 더러운 환경을, 미움에 가득찬 상념의 사람은 증오에 가득찬 환경을, 도심(盜心)의 상념은 훔치고 훔침을 당하는 세계를,

쓸쓸한 상념을 가진 사람은 쓸쓸한 환경을 저마다 본인의 운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업생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의 육체세계 즉 60년이나 70년만의 상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3회 5회 10회……따위로 전생을 거듭한 수백년, 수천년, 수만년간의 상념의 축적이 차례로 연이 되고 과가 되고, 다시 인이 되고 연을 만들고 과로 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도, 이 현재의 육체의 30년, 50년의 상념만을 자기의 상념이라 생각하고선,

“나는 그런 나쁜 일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쁜 일만이 생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

“나는 시집을 가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시집을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상념대로 된다고 하는 법칙은 거짓말이다” 등등, 현재의 육체계만의 상념으로 판단한다면 아닌게 아니라 좀처럼 수궁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인, 물체는 위해서 아래로 떨어 진다고 하는 낙하법칙(落下法則)이나, 전류(電流)의 법칙과도 마찬가지로 절대(絶對)의 법칙인 것이다.

생각한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법칙을 아는 것 만으로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진보가 빠르고 운명개선도 하기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법칙도 응

용을 잘못 하거나 반대로 생각하면 도리어 그 사람 자신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만다.

생각한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을 진지(眞摯)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공포심이 매우 강하다, 자기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이 마음의 법칙대로 반드시 두려운 사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 두려워하는 일은 모두 찾아 온다 라고, 그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밤낮으로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애타행(愛他行)을 위해 항상 마음을 써, 그 때문에 언제나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가난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가난한 것이요, 부유(富裕)한 마음을 일으키세요, 당신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기에 당신 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만이 모여드는 것이요” 라고 설교한다. 이 때문에 그 사람은 선행(善行)을 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의심을 품게 되어 그 후부터 애행(愛行)이 흔들리게 된다.

위와 같은 예(例)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의 법칙(인연)만을 생각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는 경우는 실로 엉뚱한 역효과를 가져 오기 쉽다.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식으로 무엇이든 좋지 않게 나타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나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무턱대고 꾸짖거나 꾸지람을 당하거나 한다면, 실로 사랑(慈愛)도 인정도 없는 인생으로 되어 버리고 만다.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남을 손상하거나 자신을 상(傷)하게 하는 것은 신(神)의 본성을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無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신은 사랑(慈愛)이다. 사랑인 까닭에 우리들에게 수호신을 보내 주시고, 수호령을 임명해서 인간세계의 악인연을 소멸해 버리려고 하신다.

수호령을 믿고 수호신을 생각하고 신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연의 전회(轉回)와 마음의 법칙을 안다고 한들, 인간은 영원히 구원 받지 못한다.

이 쪽에서 알고 있건 말건, 수호령은 다만 묵묵히 인간을 지켜 주시고 있다.

꿈은 왜 꾸는 것인가? 이 문제는 세계의 학자들이 여러모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있다.

꿈은 인간의 업인연이 소멸하는 모습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상념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법칙은 움직일 수 없

는 법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칙대로 인간의 상념이 상념 그대로 이 육체계에 나타난다면 이 인생은 훨씬 이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육체인간의 마음을 저 밑바닥까지 해부하면 사랑은 정에 흘러서 집착이 되고, 원한은 원한을 가중(加重)하고, 슬픔은 항상 비애에 젖게 하고, 투쟁심은 항상 전화(戰火)를 일으키고, 정욕(情慾)의 업화(業火)는 이르는 곳마다에 불타 퍼지며, 살상사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전개 되었으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호령은 이 업념(業念)의 감정을 육체뇌수(肉體腦髓)의 념이 휴지(休止)하고 있는 동안에 교묘하게 꿈으로 해서 육체세계와 분리시켜 현상화하여 버린다. 이것이 바로 수호령의 위대한 작업의 하나인 것이다. 나타나기만 하면 소멸하는 것이 상념의 성질이므로, 꿈으로 해서 현상화하여 버리면 그 상념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육체세계에 나타난 경우는 그 때 나타난 그 현상이 또 두뇌에 캐치되어 같은 상념을 다시금 유체에 기록해 버리지만 (그래도 나타나기만 하면 얼마쯤은 소멸되어 간다), 꿈의 경우는 그 상념이 교묘히 희화화(戲畵化)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상념인가 판별할 수 없으므로, 꿈

이 개인 뒤에 아무리 육체두뇌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 꿈에 나타난 상념이 다시 육체에 기록 되는 일은 없다.

그 상념은 꿈에 의해 일단 단절되므로 업인연이 그만큼 소멸된 것으로 된다. 종종 확실히 기억해 낼 수 있는 꿈도 있긴 하지만, 수호령이 예지적(予知的)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꿈, 이른바 영몽(靈夢) 이외는 역시 그 상념의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해 내지 못한다.

플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는 꿈은 전부 성욕(性慾)의 나타남(顯現)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꿈에 나타나는 물질, 풍경, 성명 등에 의해, 저마다의 내용을 해부하고 있지만, 나의 소신과는 판이한 해석이며, 인간의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판연(判然)하지 않는 꿈은 그것을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간단히 자기의 악상념이 육체의 나쁜 운명으로 나타날 뻔했던 것을 수호령이 그 꿈으로 나타나게 하여 소멸시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매우 큰 구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수호령의 가호(加護)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수호령은 영계, 유계, 육체계의 세 계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며, 유계에서 형성되어 가는 운명 혹은 이미 형성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절로 육체계(현계)의 운명으로 현상화하려고 하는 악상념의 결과(인과)를 그 인간의 운명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정(修正)해 간다.

이 수호령의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육체인간의 태반이 이 수호령의 음적(陰的)인 가호(加護)를 알지 못하고 있다. 수호령은 그 육체인간이 수호령의 수호의 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것은 아랑곳 없이 다만 오로지 운명의 수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 바 보살행(菩薩行)인 것이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호령이 운명을 수정해 가는가 하면 여러 방법이 있다.

가령, 전복(顛覆)한 열차를 탈 뻔했던 것을 잊은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느라 차의 출발시간을 대지 못해 생명의 위험을 면했다고 하는 경우, 이 잊은 물건에 수호령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서 수

호령의 녀미 그 사람의 육체 두뇌에 작용하여 그 사람의 두뇌의 회전을 순간적으로 저지해서 물건을 잊게끔 만든 것이다.

또 타인을 시켜 자기가 수호하는 인간을 돕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친구 A를 찾아 가고 싶어져서 별로 용건도 없는데도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한 기분으로 그 친구를 방문했다. 그랬더니 친구 A의 집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막 집단자살의 직전이었다. 깜짝 놀란 그 어떤 사람은 곧 이 친구 A의 일가를 구출하게 된다.

이 경우, A의 수호령은 A를 구조하기 위해 A와 파장(波長)이 맞는 친구인 어떤 사람에게 녀미를 보내어 A의 집을 방문케 한 것이다. 이 친구라면 A를 구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수호령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예와 같은 일이 항상 인간세계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호령은 그 피수호체(被守護體)가 잠자고 있을 때는 물론, 잠이 깨어 일하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언제 어느 시간에도 자기가 맡은 인간을 끊임 없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인간이 방출하는 악상념의 축

적을 정화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육체계(현계)의 구원으로서는 자기가 맡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의 가능한 노력, 경험을 시키면서 일단 유사시에 도와 준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은 수호령에 있어서 가장 활동하기 쉬운 육체인간의 상태는 항상 수호령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어 주어야 한다는 그것이다.

수호령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항상 수호령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호하기 쉽다. 그렇다고 수호령의 생전(生前)의 성명같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수호령이 열심히 정화(淨化)의 념을 육체에 보내더라도 그 육체의 마음이 전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뿐, 조금도 수호령 쪽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경우는 매우 지키기 힘들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잠의 세계에 육체가 들어갔을 때, 무심(無心)으로 된 육체뇌수로부터 악상념의 축적(그때 그때의 인연)을 꿈으로 화(化)해서 소멸시키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또 앞서 설례(設例)한 경우처럼, 타인에게 송념(送念)해서 타인으로 부터 주의나 도움을 받도록 만든다. 이 때의 상대방은

반드시 과거세에서 수호령끼리, 또는 육체인간 끼리 인연이 깊이 맺어진 사람이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때로는, 그 피수호체(被守護體)인 인간이 너무나도 업인연이 깊고, 미망(迷妄·無明)으로 말미암아 분령(分靈)의 빛(光)을 거의 가리워 버리고 있는 경우는, 아무리 수호령이 전력을 다하여 정화하려고 애를 써도 통하지 않는다. 이 때는 할 수 없이 수호령은 수호신에게 구원을 청한다. 그러면 수호신은 수호령의 청을 들어 주어서, 신광(神光)을 그 육체인간에게 방사한다. 이 빛은 업인연을 뚫고 분령에 닿아서 그 분령의 빛의 힘이 증가(增加)된다. 이 때, 어쩐지 모르게 이 육체인간의 마음(뇌수)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솟아오르게 된다. 이 경우, 단지 이익신심적(利益信心的)인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좋다. 그 인간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분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보이기 때문이다. 그 때, 수호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인간에게 가장 적당한 종교로 그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수호신의 빛에 의해 일거(一拳)에 유계로 진출해 버리는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급사(急死)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편이 그 인간의 진보를 위해 알맞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수호령은 육체인간과 일체가 되어서 인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되려면, 오직 수호신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겨 버리면 된다. 수호신령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감사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이 신불(神佛)에 대한 전탁(全托)인 것이며, 수호령의 활약을 충분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자연히 조화를 이루게 되며, 생활도 틀림 없이 안락하게 된다. 왜냐 하면, 수호의 신령에게 똑바로 이어지고, 그 연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업생(業生)인 인연인과의 소용돌이로부터 어느 사이엔가 이탈되어 분령 본래의 빛이 직령(神佛)에 이어지게 되므로 육체를 가진 채 인간신불자(人間神佛子)의 실관(實觀)을 참으로 체득(體得)하게 되는 까닭이다.

수호령도 수호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만 부질없이 정신통일법을 행한다거나 좌선(坐禪)을 하는 경우, 그 정신통일로 인해 약간 공(空)으로 된 육체에 유계의 혼백(魂魄)이 감응(感應)하여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수호령에 의해 저절로 정화된 생

활태도, 이른바 밝고 즐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어쩔지 몰상식한, 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가진 인간이 된다.

나는 좌선이나 정좌(靜坐)등에 의해 마음을 공(空)으로 하는 행법(行法)을 채용하지 않는다. 공관(空觀)하는 경우는 훌륭한 도사(導師)가 없으면 위험하다.

나는 다만 소박하고도 자연스럽게 수호령 수호신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생활환경에서 꾸준히 노력해 가는 편이 보다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불에 이어질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어떠한 곤란한 사태가 그 사람 앞에 전개되더라도 수호신령의 가호(加護)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태를 광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수호령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전의 호적조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자기와 관계가 깊은 선조(先祖)의 한분이 실불과 이어진 강한 힘으로 지켜 주시고 계신다고 그냥 순박하게 생각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마치 어린 아이가 무조건 어머니를 믿고, 따르고, 맡겨 버리듯이 수호의 신령에게 전탁(全

托)하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 진정 그러한 마음 가짐으로 수호의 신령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육친의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 주시며, 육체가 죽은 뒤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루 바빠 깨달아야 한다.

만약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건에 당면했을 때엔, 마음 속으로 수호령을 부르면서 그 재단(裁斷)을 청원(請願)하면 반드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그 답을 하여 주신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문득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이 번뜩일지도 모른다. 이 경우, 전자(前者)라면 최초에 만난 사람이며, 후자(後者)의 경우는 최초의 직감, 즉 제1 직감이 그 답(答)이다. 답이 아무리 현재의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그것은 장차 반드시 좋게 해결되는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제2 직감으로 나오는 것은 업인연의 답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인연의 답은 항상 달콤하다. 아주 훌륭한 답인 양 생각되는 수가 많은 까닭에 자기도 모르게 그 답에 휘말려 버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항상 수호령을 믿고 감사의 생각을 지

너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홍법대사(弘法大師)가 동행이인(同行二人)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 인간생활은 자기 혼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호령과 둘이서 산다, 신불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과도 같다. 다만, 일반사람들에 있어, 하느님이라는 식으로 너무나 큰, 그리고 너무나 높은 느낌의 것보다는 수호령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직결된 조상 가운데서 가장 깨달음의 빛이 강력한 영(靈)이 자기를 배후에서 항상 지켜 주신다고 생각하는 편이 보다 친근감을 갖게 되고 염(念)하기도 쉬우므로, 나는 신불과 통일하는 환경으로 보다 손쉽게 이끌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항상 수호령을 부르고 감사하라고 제창(提唱)하고 있다.

또, 현상에 나타난 질병이나 불행을 이것은 과거의 어떠한 마음의 나타남인가 하고 정신분석해서 반성하는 것보다는, 나타난 나쁜 사태는 모두 과거의 업인연이 형상(形象)으로 나타나서 소멸되어 가는 현상(現象)이므로 이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한결 더 좋은 환경으로 된다고 믿고, 그와 동시에 수호령이 지켜 주시고 계시니까 반드시 좋아진다, 라고 믿어야 한

다. 과거의 인연을 분석하면, 자기를 손상(損傷)하기 쉬우며, 기분이 어두워져서 도리어 신불로부터 이탈(離脫)되기 쉽게 된다.

신불은 빛(光明)이므로 항상 밝은 마음의 사람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신불은 사랑(慈愛)이다, 빛(光)이다, 나는 항상 그 사랑과 빛 가운데 살고 있다, 더구나 또 수호령의 수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과거는 없다, 과거는 꺼져 간다, 어떠한 고통도 반드시 소멸되어 간다——라고 과거의 마음의 잘못 같은 것을 후벼 파볼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광명 쪽으로 마음을 돌려 가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는 제일 소중한 일인 것이다.

6. 올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

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최초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종교란 신불(神佛<절대자>)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밝히는 길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를 구분하여 고찰(考察)하기로 한다.

그런데 종교단체 중에는 그 명칭을 ○○도(道)라고 일컫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말한다. 「우리 도(道)는 어디까지나 일반종교의 상위(上位)에 있는 도(道)이지 종교는 아니며, 따라서 일반종교와 동렬(同列)일 수는 없다. 그리고 종교에 따르기 마련인 신앙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며, 수도(修道)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데에는 그 연원(淵源)에 있어 전혀 근거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다음에 미루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 종교로 치고 설명하고자 한다.(번역자 註)

신불이란, 인간이념의 근본이며 지혜(智慧), 사랑(慈悲), 생명의 근원이다. 따라서 완전, 원만, 조화의 상징인 것이다.

이 완전 원만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인연(業因緣)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소용돌이 자체가 자기인양 오인하고서, 고통하고 번민하면서 그 소용돌이를 벗어나고 도피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이 육체 인간의 모습인 것이다.

그리고 그 업인연의 소용돌이를 벗어나, 내재하는 신불성을 완전히 빛낸 사람을 해탈자(解脫者), 불타(佛陀)라고 일컫는다. 석가(釋迦)가 그러하며,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 밖에도 그러한 완전한 신불성을 나타낸 각자(覺者)가 있었던 것이다.

그 각자들은 먼저 신불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인간은 완전원만한 신불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행하여, 사람들을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로 교도(教導)하여 갔다. 자기가 완전원만한 신불성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업생(業生)을 초월해서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사(導師)는 신불의 사도(使徒)들이며, 그야말로 참된 종교가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각자들이 육체생명을 마친 뒤, 그 각자

들이 가르친 진리를 여러 제자들이 저마다의 독자적인 형태로 그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슨 종(宗), 무슨 파(派), 무슨 교회, 등등으로 세계 전역에 퍼져 갔다. 동양에서는 불교를 맨 먼저 설교하고 차츰 교세가 확장되어 가장 큰 종교로 되었는데, 예수교 역시 뒤질세라 그 뒤를 바짝 따르게 되어 현재는 오히려 불교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 왔으며, 기타 잡다한 정사(正邪)의 신흥종교가 수 없이 생겨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들의 일부는 또한 각종파를 만들어서, 점점 종교 진리의 근본을 망각하고 오직 격렬한 종파 다툼을 하면서 신자의 획득에만 광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이와 같이 종교가 갖가지 조직을 갖고서 세계 각국에 퍼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종교심은 그 조직의 확대와 정비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고대의 인류는 종교를 학리적(學理的)으로 아는 것보다는 행위로 이해하고 직접체험으로 신분을 알려고 했었는데, 중세, 현대로 옳아 옳에 따라 차츰 종교는 행(行)에서 철학으로 옳아 가게 되어 드디어는 학리연구를 위주로 하게 되고, 행에서 오는 직접체험을 해 나가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

아 보기 힘들 정도로 본래의 종교심으로부터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떨어져 가고만 있다.

이윽고 종교는 학리적 구명자(究明者)와 교단(教團), 교파(教派)의 형식적인 답습자(踏襲者)와 진실로 신불과 인간과의 관계를 직접체험으로 알려고 하는 행을 위주하는 사람의 3개의 흐름으로 되었다.

종교는 학리적으로 구명하는 것만으로는 육체뇌수(肉體腦髓)에 지식으로 남아 있을 뿐, 선각자(先覺者)의 위대한 뜻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며, 또 형식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신불의 생명이 메말라 죽을 뿐, 결코 살려 나갈 수는 없다.

신불은 영생자(永生者)이며, 인간 또한 영생자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자재하게 형상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불이며 인간인 것이다.

학리(學理)에 고착되고 형식에 붙잡힌 세계에는 아무리 구해 봤자 신불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철학이 아니다. 철학을 초월한 행의 세계가 종교인 것이다.

또 종교란 교회나 교단이나 또는 가람(伽藍)이 아니며 조직도 아니다. 인간이 신불에 그냥 그대로 이어져 있는 생명임을 자각케 하는 행(行)이며 진리인 것이다.

참되고 올바른 종교가 세계에 퍼져서, 세계인류가 참된 종교심,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 나간다면, 이 세상이 사랑(慈愛)에 충만한 천국이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사랑(慈愛)이란 신불 그 자체이며, 신불과 인간을 잇고 인간과 인간을 서로 조화시키고 인간과 모든 생물(生物)을 조화시키는 최대의 힘을 가진 마음이다.

종교를 하면서도 자애심이 솟아 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종교인이 아니며, 신불에 기원하면서도 안심입명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불관은 어디엔가 잘못이 있으며, 그 기원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우리는 올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 그리고 올바른 신앙심과 그릇된 신앙심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고로 기적을 바라고 새로운 세계를 회구해 왔다. 인간의 힘 이상의 것, 지식 이상의 사건, 이러한 것을 대망(待望)하는 마음은 본래의 신불성(神佛性), 자유자재성(自由自在性)의 현현(顯現)의 일부이며, 항상 새 세계를 회구하는 인류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신불의 나라가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바라는 마음, 회구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과학

정신이 되어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물질에서 물질로 탐구하여 가서, 마침내는 현대와 같이 물질파동설(物質波動說)에까지 진전을 가져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회구하는 마음이 오관(五官)의 세계를 초월해서 파동의 세계에 이르렀으며, 그것을 또 다시 초월해서 모든 파동을 일으키는 본원의 세계에까지 돌입한 각자(覺者)를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이 필연성을 가지고 근대의 문화를 열어서 이상세계(理想世界)의 수립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선각자(先覺者), 석존(釋尊)은 자기의 육체를 초월해서 본원에 도달했을 때, 자기 자신이 광명신(光明身)임을 깨달았던 것이며, 그 이래 자유자재로 신불의 힘을 구사하여 숭한 기적을 나타냈으며, 그 제자들도 영계(靈界)의 수호신의 힘을 빌어서 저마다의 신통력(神通力)을 발휘했던 것이다.

요즘의 불교학자 가운데는 석존의 위대함을 다만 그 철학적인 설교에만 두고 그 기적의 면은 석존의 위대성을 칭송하기 위한 하나의 설화적(說話的)인 해석으로 간주하려 드는 경향이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철리(佛教哲理)가 현재처럼 보전(普傳)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기적도 진실한 것이었음을 나는

명언(明言)한다.

기적이 없는 종교는 그다지 보전(普傳)되지 아니하며, 인간을 매료(魅了)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기적만을 선전하는 종교에는 사악(邪惡)한 것이 많다.

설교만의 종교는 종교의 형해(形骸)에 흐르기 쉬우며, 기적만의 종교는 도리어 인간을 불안동요(不安動搖)로 몰아 넣기 마련이다.

근대의 기성종교의 태반은 형식을 가르칠 수 있을 뿐 매력이 없으며, 신흥종교의 태반은 기적적 현세이익(奇蹟的 現世利益)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가지고는 인간의 불안동요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구제(救濟)하여 주지 못한다.

그 때, 그 경우에 현세이익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올바른 종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종교란 현세이익같은 건 아무래도 좋고 오직 사후(死後)나 미래(未來)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도 옳지 않다.

또 종교에서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며, 인간의 본체를 신불자체라고 관(觀)하는 것,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 空即是色 <모든 물건은 곧 공이며, 공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만이 종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

은 참으로 올바른 진리이긴 하지만, 현세처럼 육체 생활에의 집착이 매우 강한 시대에 다만 육체는 가상(假相)이지 실상(實相)이 아니다, 라면서 전연 육체 생활의 이해(利害)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일반 대중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법에 의해 참된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은 근소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육체생활이 있는 이상, 육체생활의 이해(利害) 따위는 전연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설법에 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체생활의 이해도 인정하고 그 이익을 꾀하는 한편, 유체(幽體)의 존재를 인정케 하고 유계(幽界)를 알려서, 유계에 있어서의 사후생활의 방법을 가르쳐 주며, 다시 가장 소중한 “인간은 신불(神佛) 그자체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전자(前者)의 각 방법보다 훨씬 좋다고 단언한다.

여기서, 제 3 장에서 빠뜨린 사후의 세계 즉 유계(幽界)에 대하여 부연(敷衍)하고자 한다. 사후의 세계를 여기서 설명해 두지 아니하면 그릇된 종교를 설명하는 대목에 가서 독자의 이해를 얻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인간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불안의 근저는 죽음의 공

포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고통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러한 괴로움 짙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다.

죽음처럼 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죽음은 인간에 있어서의 종말(終末)이냐? 전이(轉移)이냐? 이 수수께끼가 풀림으로 해서 인간의 진보는 한결 빨라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인간은 육체의 소멸에 의해 인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장(前章)에서도 말해 둔 바 있다.

죽음이란 유계(幽界<이후는 영계도 포함시킨다>)에로의 진출(轉出)인 것이다. 육체의 죽음이란 유계에로의 탄생인 것이다.

죽는다는 것을 왕생(往生)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 사실을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 안의 신(神)에 이어진 분령(分靈<이하 다만 영이라 한다>)이 유체(幽體)를 지닌 채, 육체(肉体)로부터 벗어난 뒤의 상태를 말한다.

전장(前章)과 중복되지만, 인간이란 육체가 아니라

영(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육체는 영의 용기(容器)와 같은 것이며, 영의 마음대로 육체를 움직인다. 마치 자동차가 운전기사에 의해 굴러 가는 것과 같으며, 영의 운전에 의해 갖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육체인 것이다.

다만 전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직령(神)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분령이 먼저 유체를 만들고 그 유체를 속옷처럼 입고, 그 속옷을 입은 데다 또 육체라고 하는 겉옷을 입은 모습을 보통은 인간이라 부르는 것인데도, 그 육체의 소멸을 인간 자체의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이승에 남겨진 육체계의 사람들에게 생겼던 것이다.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영체는 매우 미세한 주파수(周波數)를 가진 파장(波長)의 체(體)이며, 육체는 조잡한 주파수를 가진 파장체이며, 유체는 그 중간의 주파수를 가진 파장의 체이며, 분령은 그 3체를 자기의 체(體)로 삼고 있는 것인데, 육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체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영체에서 육체로 옮기는 데는 파장의 주파수가 너무나도 차이가 커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유체는 영과 육체를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

며, 영의 념(念)과 육체인간으로서의 뇌수의 생각을 그 체(體)에 녹음(錄音)해 두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체를 염체<念體>라고도 한다)

육체인간의 사망에 따라 인간(靈)은 유체를 지닌 채 유계에서 생활한다. 이 유계에도 육체계(現界)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各樣各色)의 생활이 있으며 단계가 있다. 그 생활은 유체에 축적되어 있는 상념(想念)대로 실현되어 간다. 그 사람의 상념이 미움으로 충만해 있으면 증오(憎惡)에 둘러싸인 생활을 한다. 자비(慈悲) 깊은 상념이라면 자비에 충만한 상념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그 축적된 상념의 양상(樣相)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유계의 단계는 세밀히 말한다면 한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대별한다면 천계(天界), 인계(人界), 지계(地界)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상위(上位)의 단계는 천계인데 자비심이 많은 사람, 물욕이 적은 사람, 집착(執着)이 적은 사람 등등 신불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며, 이 계에도 다시 여러 단계가 있다. 인계(人界)란 이 육체계의 보통 사람들이며 평균점의 사람들의 권(圈)이다. 또 지계는 사랑(慈悲)을 배반하는 사람, 물질욕이 많은 사람, 집착이 강한 사람, 자아심(自我心)이 강한 사람, 게으른 사람 등등 신불의

마음 즉 본원(本源)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그 업인연을 소멸시켜 받기 위해 사는 세계이다. 그런데 지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유체(幽體)를 볼 수 있으며, 육체계보다 모든 점에서 속도가 빠르며, 선악(善惡) 간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현된다. 그리고 업인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육체계보다 업인연의 소용돌이가 급속하게 회전하므로 (그것은 염파의 주파수가 육체계보다 미세하기 때문이다) 좀처럼 그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 소용돌이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상념을 정지(停止)할 것, 절대의 정신통일에 들어갈 것, 다시 말해서 신불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아무리 업인연의 염(念)이 자기의 주위를 회전하더라도 꿈쩍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통일의 심천(深淺)에 따라 축적된 상념의 소멸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일이 잘 되면 자기가 사는 권(圈<세계>)이 높아지기 마련인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어떠한 쓰라림이나 괴로움이나 또는 자기에겐 불리한 어떠한 나쁜 일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업인연이 꺼져 가는 현상이다” 라고 보고(觀), 오로지 신불과의 통일관(統一觀)에 젖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계에 있어서의 경우와도 같지만, 그러나 유계는 육체계처럼 그 업인연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세계와는 달리, 맹렬히 그리고 급격하게 나타나므로 도저히 그 괴로움을 견디어 낼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육체계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자기의 업인연을 보다 많이 소멸해 두는 편이 유계에서 같은 업인연을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얼마나 편하고 쉬운 일인지 모른다.

예컨대, 100만원의 빚(업인연)을 진 사람이 육체계에서는 매월 5만원씩만 월불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계에서는 100만원을 단번에 지불하지 아니하면 원금에다 100만원의 이자(利子)를 얹어서 지불해야 된다는 따위이다.

유계에서는 정신통일이 최대의 오도(悟道)의 법인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수호신의 지도에 솔직하게 순종하라는 그것이다. 육체계에서 수호령, 수호신의 가호가 있는 것처럼, 유계에서도 수호령, 수호신(주로 수호신의 원조)의 인도가 있으므로, 그것에 솔직하게 따르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 경우도 자기의 목전의 이익을 초월해서 인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호신의 인도가 설령 자기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암전하게 순

중해야 한다. 이 경우, 육체계에서 항상 수호령, 수호신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큰 이익을 얻는 수가 매우 많다.

이렇게 해서, 유계에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다시 육체계에 탄생하여 또 다시 다른 생활체험을 하는 따위로 두 번, 세 번…… 양계(兩界)에서 체험을 되풀이하면서 차츰 고도의 생활에 인도되어, 마침내는 천계에 이르러 신격(神格)을 얻어서 신계(神界)에 살게 되며, 혹은 각자(覺者<佛>)가 되어서 육체계, 유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축적한 악상념(惡想念)을 어떻게 적절하게 소멸시켜 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환경이 달라져 가는 것이다.

물통에 오수(汚水)가 가득차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 물을 버리고 새물을 넣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오수(악상념)가 넘쳐 흐르면 그 장소가 더러워지기(그 사람의 생활에 일어나는 불행, 질병 등)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운명의 오수(汚水<惡想念>)를 버리지 않고 그냥 두어 두고 싶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자꾸 오수(汚水<질병이나 불행에 대한 공포, 원망, 분노 등등의 악상념>)를 부어만 간다면, 그 물통에서는 항상 더러운 물이 넘쳐 흘러서 그 장소는

오수(汚水) 때문에 진창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 오수를 없애려면 우선 맑은 물을 그 물통속에 부어 넣는 일(좋은 상념, 자비와 감사)이 제일이며, 동시에 그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또 인내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야기를 유계로 되돌려서 유계에서 육체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생물(生物)의 이야기를 하여 보고자 한다.

유계에는 이미 육체계를 떠났으면서도 아직도 육체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인간의 소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육체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여 질병 또는 상해(傷害)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이미 사망했으면서도, 우리가 보통 꿈을 꾸고 있는 식으로, 자기의 육체계에서의 주위 사람들 즉 근친(近親), 자손들을 상념하게 되어, 그 사람들의 육체의 배후에 밀착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는 이미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며, 사실은 유체만이 상념을 지닌 채 육체계를 방황할 때에 일어 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 유혼(幽魂)이 폐병으로 죽은 사람인 경우는 그 폐병의 염(念)을 그냥 그대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유혼에게 밀착을 당한 사람은 차츰 그 폐병의 염에 켜워져서 그 사람도 마침내는 폐병이 되고 만다. 그것은 친근한 사람이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재앙을 받기 쉽다. 그 재앙은 질병이나 상해(傷害) 등으로 나타난다.

생전(生前)의 한(恨) 풀이를 하려는 경우도 원망을 받은 사람은 수난(受難)하기 쉽다.

또, 유계에 이미 전이(轉移)했으면서도 육체계에 비상한 흥미를 가진 영혼이 있는가 하면, 유계에만 생존하는 감정령(感情靈), 혹은 동물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간과 같은 윤리관이나 도의같은 건 조금도 갖고 있지 않는 생물이 있다. 이와같은 영혼이나 생물은 깨달음(悟)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속된 일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신성(神性)을 탐구하느니보다는, 뭔가 사건이라도 일으켜서 떠들어 대고 싶어하며, 또 숭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까닭에, 육체인간이 지나치게 자기의 욕망 달성을 위해 이른바 기복치성(祈福致誠)을 하거나 기적에 의지하려 드는 인간의 눈치를 보고선(어느 정도의 유계인은 육체계의 일을 잘 안다) 장난기를 일으켜서, 모종(某種)의 영매소질(靈媒素質)을 가진(이것은 육체의 속옷인 유체가 남달리 큰 사람) 사람에게 송념(送念)

을 해서 영매(靈媒)로 삼고, 그 영매체의 힘을 빌어서 “나는 ○○신이다, ○○부처님이다” 하는 식으로 나타나서 육체세계의 갖가지 사건을 예언하곤 하는데, 곧잘 맞추어 내기도 한다. 저급(低級)한 종교, 그릇된 종교에는 이런 종류가 매우 많다.

이런 종류의 종교의 교조(敎祖)는 대개 여성이거나 학문적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 많다. 왜냐 하면, 지성(知性)을 갖춘 사람은 꽤 순진한 사람일지라도, 영매를 통해서 말하는 그 저급령의 말이나 태도에 아무래도 비판의 눈을 아니 가질 수 없으므로, 영매의 육체를 사용하려고 붙는 영혼에 있어 매우 부자유스럽고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교조나 종교가 등은 매우 존대연(尊大然)한 태도를 취하거나 비열한 언사를 쓴다. 또 어떤 때는 영매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불안동요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예언을 듣고 그대로 방비할 수 있는 예언이라면 무방하겠지만, 절대로 재난을 면할 수 없는 미래의 예언이라면 공연히 그 사람을 실망케 하는 결과가 된다. 구제도 못할 일에 대하여 미리 겁만 주는 신불(神佛)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종류의 영혼은 유계의 생물이며, 대신(大神)

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임명된 수호신, 수호령이 아니다. 다만 그냥 재미로 육체인간을 놀라게 하거나 외경(畏敬)을 시켜 놓고 득의양양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인간으로 비유한다면 불량배와 같은 것이다.

다만 예언이 맞았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거나 하는 기적만으로 그 인간을 신불 또는 신불의 사자(使者)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영혼(종교가)의 말대로 했더니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세이익만의 목적으로 신불에게 매달리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신불의 길을 도리어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생명을 올바르게 살리지 못하고 더럽혀진 마음을 가진 채, 신불의 구원을 받으려 드는 인간들의 저비(低卑)한 마음을 조장하는 따위의 종교는 그릇된 종교라 아니 할 수 없다.

또 미래의 예언을 해서 사람을 겁주고선, 그것을 입신(入信)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종교도 역시 그릇된 종교인 것이다.

종교란 인간으로 하여금 안심입명(安心立命)케 하는 것이 그 본지(本旨)인데도, 그 일상생활이 종교에 입실했기 때문에 도리어 불안하게 되었다거나 문란하

게 되었다거나 한다면, 그 종교는 인간에게 도리어 해를 끼친 결과가 된다.

참된 종교란 업생(業生)을 초월하여 신불과 직통하는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이어야 하며, 참된 신앙이란 사랑(慈悲)과 성실함(眞)을 더욱 더욱 높여 주고 심화하여 인류의 대조화창조(大調和創造)를 위해 위대한 용기를 용솟음 치게 하여 주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종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동요한다면 그 종교가 틀렸거나, 그 사람의 신앙에 잘못이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아무리 올바른 종교를 한다 하더라도 입신후 바로 안심입명의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행(信行)의 독실(篤實) 여하(如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백년을 해도 헛수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

참된 종교를 찾으려면 우선 자기의 수호령, 수호신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열심히 부탁드리면 된다. 수호령, 수호신은 반드시 그 사람을 가장 적당한 종교가나 지도자 곁에 보내 주고야 만다. 그 때는 뭔가 안심감 같은 것이 느껴지거나 즐거운, 그리운 느낌 같

은 것이 가슴을 차지하게 된다.

아무리 고매한 진리를 설법하는 종교로부터 입신의 권유를 받더라도 수호령, 수호신에게 염(念)해 봐서 가기 싫거나, 가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 종교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때는 그 사람의 심경에 그 종교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건 우선 자기의 마음의 지도자, 행동의 수호자인 수호령에게 염(念)해 보아야 한다. 반드시 현계(現界)에 있어서의 좋은 지도자, 좋은 상대방을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여 준다.

자기의 안에 신불이 있으므로 다른 누구의 교(敎)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친구들에게 “자네들은 자네들의 내부에 신불성(神佛性)이 있어서 저절로 자네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있으니까, 어디의 누구에게도 교(敎)를 받는다거나 정화(淨化) 같은 것을 하여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야”라고 충고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된다. 그것은 틀림 없는 말 같으면서도 매우 잘못된 말이다. 내부의 신불성은 항상 어떤 인간이나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 사람을 인도하여 주는 것으로서, 가령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내부신불성

의 제도(啓導)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리에 소탈하는 것이 실로 소중한 일이며, 그 소탈함은 항상 내부신불성(수호령을 포함)의 제도에 마음을 기울이는 진지한 기념(祈念)에 그 근저를 두어야 한다.

내부의 신불성이란 항상 수호령, 수호신을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교단(宗教敎團) 그 자체는 올바르게 훌륭하지만, 설법을 담당하는 사람이 옳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종교가 실로 훌륭하며 교리 자체만 볼때는 아무도 그 이상의 설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설법한 진리 그대로를 이 육체세계에 실현시킬 수 없다면 그 종교는 아직도 덜 익은 날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인간이란 본래는 무형무상(無形無象)이며, 신불과 일체(一體)이며, 광명 그 자체인 실상신(實相身), 무애신(無礙身)이므로, 유계가 있다거나 사후(死後)에도 영혼은 살아 있다거나 하는 따위 일은 전연 알려고 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오로지 부처를憶념(憶念)하면 된다고 어떤 종교에서는 역설하고 있는데, 그 리(理)는 진(真)이며 돌이킬 말도 없지만, 그

러나 오로지 부처를忆념하는 것만으로 안심(安心)의 경계(境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인가? 또 오로지 부처만을忆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라는 실제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러한 지도방법으로 과연 몇 사람이나 구제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현대와 같이 유물지식(唯物知識)이 팽창한 시대에 다만 인간은 신불성이며 무애심(無礙心)이다, 라는 따위 실상론(實相論), 본체론(本体論)만으로 현대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본체론, 실상완전론(實相完全論)을 설법하면서, 인간인연론(人間因緣論)도 동시에 설법함은 물론, 육체계, 유계, 영계, 신계(神界<佛界>) 등에 대하여도 일단 지식으로 인식케 하고서, 본체(本体)는 이러이러한 것이지만 인연으로서는 이러이러하며, 인간은 그와 같은 각종(各種)의 계(界)를 몇 번이고 왕래하는 것이므로, 본체를 실제로 확인하고 실상계(實相界)에서 신불(神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교도(敎導)하여 가는 것이 참다운 종교가이며 올바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심령학자(心靈學者)나 심령연구가(心靈研究家)들이 하는 일도 매우 소중하며, 좋은

의미의 영매자(靈媒者)도 필요하다. 또 구래의 불교나 도교(道敎), 예수교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하나에만 집착되어 버리는 경우는 도저히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는 없으며, 현상의 생활환경도 도저히 개선하여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의 인연(성격도 포함)을 아는 것에 힘쓰고 장점(좋은 인연)을 발견하여 그것을 열심히 신장시켜 나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인연(단점)은 그것을 힘써 발견하되, 그러나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해방시켜 나가야 한다.

종교가나 지도자는 상대방의 장점, 단점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토대로 하여, 장점은 더욱 잘 뺀어 나가도록 지도하고, 단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우고 지워 주어서 마침내는 완전히 해소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인연을 설법하면서 그 인연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지도하지 못하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무턱대고 인연 운운(云云)하면서 그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염(念)에 도리어 집착시켜서 인간본래의 자유자재성을 상실케 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은 커녕 불안심(不安心)의 생활로 그 인간을 몰아 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인연을 설법하는 이상, 반드시

그 인연을 해소 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본체가 신불이라는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인연을 상념(心)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측(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이 불행은, 이 질병은 전부 당신의 마음의 그림자예요 라고 지적하는 따위이다.

형상세계(形象世界)의 운명은 전부 마음의 그림자임은 물론 진리이지만, 그러나 현재 거기에 나타난 질병이나 불행은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악상념의 현상화(現象化)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 오히려 그 태반은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 과거세(過去世)부터 포함한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의 현상화인 경우가 더 많으며, 혹은 조상(祖上)이나 연고자(緣故者)의 악상념에 감응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 이치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 당신의 마음의 그림자예요……따위로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는 커녕, 도리어 상처만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랑(慈愛)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며, 지식이 지혜와 분리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마음이 따스한 사람, 자비심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가차 없이 찌르는 듯한 가혹한 말은 할 수 없으

며, 우선 그 불행에 대하여 동정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아무리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설법자의 말과는 아주 먼 경계에 있는 사람에게(가령, 배가 고파 허덕이는 사람에게) 고원한 이상(理想)을 일러 준들,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다.

소고기(진리 말씀)가 영양이 있다고 해서 끼니마다 소고기의 세례를 받는 데서야 어찌 견딜 수 있겠으며, 고래고기(鯨)를 먹고 싶다(진리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서 고래를 산채로 그냥 그대로 눈 앞에 놓아 준다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지도자는 항상 사랑(慈愛)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중생을 이끌어 나가지 아니하면 도리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기 쉽다.

이상으로 대강 올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의 구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다음은 나의 기념법(祈念法)에 대하여 엮어 보기로 한다.

7. 나의 기념법(祈念法)

나는 현재, 매일 많은 사람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피로가 거의 남지 않는다. 업인(業因)이 깊은 사람과 대좌(對坐)하는 순간, 상대방의 업인이 전파(電波)처럼 나의 육체신에 감응하여 오지만, 그것도 거의 순간적으로 꺼져 버리고, 피로가 그대로 육체에 남는 일은 거의 없다.

나의 육체의 두뇌는 항상 공(空)이다. 나는 육체의 두뇌로 사물을 생각해 내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충족하는 지혜가 나의 본체에서 자연히 육체로 전해져 오곤 한다.

나는 영매(靈媒)가 아니므로 영동(靈動)을 한다거나 영언(靈言)을 하는 일은 없다. 보통의 육체인간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며, 상식을 한 발짝도 넘지 않는 생활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주 많이 다른 데가 있다.

그것은 나의 본체가 바로 빛(光)이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알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며, 나의 언동(言動)이 모두 신불(神佛<本体>)에 의해 직접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의 상념이 떠날 사이 없이 두뇌를 빙빙 돌아다니는 것이지만, 나의 육체뇌수를 왕래하는 상념은 아무 것도 없다.

나는 일찌기, 일체의 상념을 단절하는 연습을 나의 수호신에 의해 강요받고 수련했던 것이다.

그것은 보통의 좌선(坐禪)이나 정신통일의 유(類)가 아니라, 24시간 줄곧 불면불휴(不眠不休)의 강행군이었던 것이다. (이 체험에 대하여는 나의 자서전<自叙傳> “하늘과 땅을 이은 자” 참조) 괴로움 치고는 이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사물을 전연 생각하지 않는, 염(念)을 정지하는, 말하자면 공(空)으로 되는 연습이다. 자나 깨나 그리고 거니는 때에도 전시간을 통해 그냥 모두가 이 연습인 것이다. 이 기간 약 3개월, 자아(自我)를 전부 멸각(滅却)하고 신불아(神佛我)로 바꾸는, 실로 말로는 형용할 수도 없는 고된 수련이었으며, 그리하여 드디어 나는 신불아일체(神佛我一体)의 경지에 도달했던 것이다.

타동적에다 맡기고 자기는 그냥 잠자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나의 경우는 자기의지(自己意志)로 자기

의 아(我)를 소멸해 버리려는 연습인 것이다. 말하자면, 인연의 유동(流動)을 초월하여 자유자재로 되기 위한 수련인 것이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끝 없이 윤회(輪廻)하는 업인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 업인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업인이 과(果)로 나타나건, 과(果)로 나타나기만 하면, 그 인연은 바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소멸되어 간다고 하는 생각과, 이로써 지금부터는 잘 된다고 하는 선념(善念)만 일으키면 그 때 운명은 새로운 선인(善因)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법을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차츰 선인연(善因緣)으로 변화하여 가서 현재의식의 선(善)한 상념과 바르게 교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은 호전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연습 시키면서, 나 자신은 나의 상념을 완전히 정지하고 상대방의 업인연을 나 자체의 생명(마음) 속으로 빨아들여 가는 묵상(默想)을 한다. 이것은 극히 괴로운 상념정지(想念停止)의 강훈련을 거쳐 도달할 수 있었던 공즉실상(空即實相)의 묵상인 것이다.

상대방과 나는 대좌(對坐)하고 앉는다. 나의 마음에는 상대방의 분령(分靈)의 빛(光)과, 그 분령이 과

거세부터 쭉 계속해서 방사(放射)해 오고 있는 상념의 파동이 각양 각색의 파장을 가지고 유체(幽體)에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觀)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상대방의 인연의 파동을 관(觀)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광체(光體)로 되어 있는 나의 안에 상대방의 인연의 파동이 흡인(吸引)되어 점점 정화(淨化)되어 가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압지(押紙<吸取紙>)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압지는 빨아들인 잉크를 지워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과의 대좌를 그만 둠과 거의 동시에 그 사람의 인연의 오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나에게 와 있는 본원의 빛이 그 오염을 지워 버리는 것이다.

나와 대좌했던 사람은 어찌 된 것인지 모르면서도 어쩐지 몸이 거뜬해지며, 기분이 상쾌해진다고들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업인연(業因緣)이 정화(淨化)된 까닭이며 따라서 그것 설교보다도 훨씬 빨리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된다.

인간의 육체는 세포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는 또 양자(陽子), 전자(電子)의 집합체이며 그것은 다시 세밀히 분석하면 미립자(微粒子)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미립자는 빛의 낱알(粒)이라 한다. 그 낱알도

좀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빛(光)의 파동(波動)이라고 과학자는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정순(精純)한 정신통일 상태로 들어가면 자기자신이 무한확(無限擴)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의 상념정지는 곧 자아를 탈각(脱却)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육체라고 하는 물질체가 존재하여 있더라도 그것은 다만 빛의 매개체(媒介体)일 따름이므로, 나와 대좌했던 사람의 업생(業生)의 인연체(因緣体)〈유체 육체〉에 본원(本源)의 빛이 유입(流入)한 결과가 되어, 분령(分靈)에 엉겨 있는 업인연이 정화되어 가서 분령의 체(体)가 경청(輕淸)해져 가는 것이므로 몇 번이고 거듭 나와의 대좌를 갖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심입명의 경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다.

이 묵상(默想)과 동시 또는 전후에 손뼉을 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연의 파동이 다종다양(多種多樣)하므로 갖가지 리듬으로 그 인연의 파동의 가락에 맞추어서 치는 것이다. 그 손뼉을 침으로써 광파(光波)가 상대방의 업인(業因)의 파동의 기복에 따라 굽이치면서 정화하여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신불의 광파가 나의 손뼉의 리듬을 통해서 나와 대좌하고 있는 사람의 업인연의 파동을 세정(洗淨)하여 가는 것이다.

그 밖에 또 갖가지 인(印)을 맺는다. 이것은 상대방을 통일시키기 위해, 또는 이 쪽의 빛의 파장을 상대방의 파장에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텔레비전의 채널을 이리 저리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인 것이다.

이 기념(祈念)은 상대방과 서로 마주보면서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배후에서 기념(祈念)하기도 한다.

마주보는 경우는 그 사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과거세부터의 업인연을 정화하는 것이 되며, 등을 돌려 놓고 배후에서 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엉겨 있는 선조(先祖)나 연고자(緣故者)의 상념을 정화하기 위한 기념(祈念)인 것이다.

또 나는 사람의 운명의 방향을 지시하고 호전(好轉)시키도록 기념한다.

나는 운명감정가가 아니므로 남의 과거의 운명을 맞히거나, 미래를 예견하거나, 성격을 지적하거나 하는 것을 본원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의 본원은 모든 인간에게 신불(神佛)의 존재를 알리고, 인간은 업생(業生)이 아니라 빛(光)의 소생(所生), 신불자(神佛子)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을 따름인 것이다.

언제까지 끝없이 번뇌(煩惱)하더라도, 아무리 고통

을 겪더라도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미망(迷妄)을 깨우쳐 주기 위해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만 단순히 “당신의 운명은 이러 이 러하므로……”라면서 그 사람의 운명의 나쁜 점을 지적하거나, “당신의 마음이 나쁘니까 당신의 불행이나 병(病)은 고쳐지지 않는 거야” 라는 따위 지도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오로지 그 사람의 운명의 호전(好轉)만을 기원하는 애념(愛念)만으로 사람을 대(對)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또 그 사람과 대좌(對坐)만 하는 경우에도, 나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쳐 온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마음에는 나 자신의 상념이 없기 때문에(나 자신이 공(空)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운명(잠재의식에 녹음<錄音>되어 있음)이 그냥 그대로 나의 텅빈 공(空)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항(事項)을 나에게 보인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말해 주지는 않는다. 사실대로 말을 하여 주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상(傷)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경우는 별문제이지만, 대개는 말해 주지 않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한편, 그

사람의 그릇된 습관의 마음, 이른 바 악상념의 버릇을 조금씩 좋은 상념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간다. 그 사이 나는 나의 기념법으로써 기념해 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무리 달변으로 진리를 설법하더라도 마음에 사랑(慈愛)이 부족한 사람은 그 모습에 빛이 곁들이지 아니하며, 아무런 설법도 못하고 다만 묵묵히 그 불행한 사람의 개운(開運)을 기원해 주는 자비(慈悲) 깊은 사람의 모습은 찬연히 빛나 보이는 것이다.

사랑은 빛이며, 빛은 곧 신불이다.

참된 행위는 신불의 행위이다. 사랑의 묵상(默想)은 빛 그 자체인 것이다. 사랑에 가득찬 진리의 말씀은 신불의 말씀이다.

그 사람을 좋게 해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먼저 빛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빛이 된다는 것은 사랑(慈愛) 그 자체로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자기의 처지가 좋아지니까 라거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거나, 사람들로부터 감사 하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따위 불순(不純)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돕고 싶다고 하는 순수한 자비심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 경우 순수한 자비심은 바로 자기의 상념정지(無我)와 같으므로 본원(本源)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자비의 순수도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달라진다. 질병같은 경우, 자기가 치료해 준다고 하는 뽀냄이나 불안동요의 마음은 빛을 어지럽히고 약화시킬 따름이다.

곧잘 영치료가(靈治療家)나 영각자(靈覺者)가 되고 싶다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 그러한 힘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신불의 마음에서 아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신불은 이미 개개인에게 천명(天命)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올바른 영능자(靈能者)나 영각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러한 방향으로 수호신이 유도(誘導)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을 현상의 마음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수호신으로부터 강요(強要)되어 버리게 된다.

나는 음악가로 처세하려고 생각하고 처음엔 음악을 공부했던 것인데, 어느 사이엔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여러가지로 즉 철학과 종교와 또 심령학(心靈學)의 길로 끌어당겨져 버리게 되어, 마침내 각종의 수행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인생지도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동안 나는 나의 동료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

이 공부했던 것도 아니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싶다고 원(願)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언제나 신불께 기념(祈念)하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 기념은——

“하느님(부처님), 부디 사회인류를 위해 나의 생명을 부려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사명(使命)을 하루 바빠 성취케 하소서”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나의 기원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다.

영능(靈能)을 얻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我)이다. 특별한 힘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我)이다. 그러한 소아(小我)의 기원은 저급(低級)의 영혼에 감응되기 쉽다. 설령 그 기원이 이루어져서 영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러한 소아(小我)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운명은 최후에 가서 막혀 버리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의 힘에 의해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진지한 사랑(慈悲)의 기념(祈念)과 샷되지 않는 순진한 밝음, 운명을 믿는 낙천(樂天), 이러한 요소가 신불에 통하는 마음이며 아무리 기념하더라도 샷(邪)된 마음, 어두운 마음, 불안한 생각 등이 있어 가지고는 신불의 마음과 통할 수 없다.

불안한 마음이 많은 사람, 어두운 마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하늘에서는 언제나 양기(陽氣)가 내려 오고 있다. 설령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이 낀 날일지라도 하늘에 마음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하늘에다 마음을 향하고 있노라면 어느 사이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념하는 것이 좋다.

“하느님(부처님), 부디 나의 마음에 자비(慈悲)를 충만(充滿)케 하소서, 부디 나로 하여금 자비 깊은 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소서”라고.

이 기념을 매일 빠짐 없이 계속해 가노라면, 사소한 여러가지 기복(祈福)을 하는 절(寺)이나 교회를 가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은 높은 경지로 인도되고야 만다.

서 있으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걷고 있으면서도, 잠자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 아무래도 좋다. 다만 오로지, 자비에 넘치는 자기가 되는 것을 계속 기념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일정한 어느 한 때의 기념보다도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에 안겨다 주는 상념의 편이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는 소리나 비꼬는 생

각, 비뚤어진 생각, 남을 원망하는 일, 그리고 질병의 불안 같은 것을 항상 생각해 가노라면, 그 상념의 작용으로 그 사람의 운명은 언제나 어둡고 불행한 것으로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상념은 운명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慈愛)은 모두를 치유(治癒)한다”

모든 불행을 타개하는 것은 마음(慈悲心)이 그 근저에 있는 행동이다.

나의 기념은 사랑(慈悲)의 기념이다. 지혜는 사랑(慈愛)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이란 정(情)이 아니라는 것을 곁들여 둔다.

정(情)은 사랑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애정(愛情)과 혼동되어 불리우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사랑(愛)마저도 업(業)이라 부르며 미망(迷妄)이라고 설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불의 사랑은 자비(慈悲)라 부른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써 왔던 것은 정(情<집착>)으로서가 아니라, 영어(英語)의 Charity(大慈悲心)의 의미로서이다.

그리고 또 사랑은 선(善)이며 정은 악(惡)이다라고

간단하게 속단해서도 안 된다. 이 현세에서는 빛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사랑에는 정이 따라 붙기 마련이다. 끓기 어려운 정을 눈물을 머금고 단절해 가는 데에 인간의 미(美)가 있으며, 사랑의 광휘(光輝)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정(情)을 간단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만약 그 사람의 냉혹성의 발로이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정에 붙들리기 쉬운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자비 깊은 사람이 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중(自重)하여 가는 모습에는 미(美)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람의 동정(動靜) 속엔 이 현상계에 있어서의 신불의 삶이 시사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기념은 자기가 상대방과 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껴안은 채 실불의 세계로 올라 가려고 하는 기념인 것이다.

기념이란 우선 자기의 마음을 텅 빈 것(空)으로 만드는 행사이다. 그때까지의 자기를 일단 완전히 버리고 신불만을 자기의 마음 속에 살도록 하는 행사이다.

소원사(所願事)는 모두 뒤로 돌려야 한다. 신불만을 자기 안에 살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소원은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아(小我)의 기원은 그 사람을 더욱 찌찌하게 만들 뿐, 아무런 소득도 없다.

오로지 신불만을 생각해야 한다. 사랑(慈悲)만을 행해야 한다.

사랑(慈愛)은 때로는 극히 준엄할 때도 있다. 그러나 냉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랑은 전체를 참되게 살리기 위해 경우에 따라 준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냉혹이란 자기와 자기의 주위의 이익을 위해 전부를 죽여 버리는 것이다.

사랑의 준엄이나, 냉혹에서 오는 지독함이나, 하는 것을 판별하고, 자기를 성찰(省察)하고 남을 참고로 하여 자기가 가야 할 도표(道標)를 확립해야 한다.

사랑의 준엄을 위장한 냉혹, 사랑(慈愛)과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관능(官能)에 뒤엉키는 정의(情意<집착>), 이 두 가지 마음을 초월하기 위하여 인간은 신불에게 기념하고 신불과 일체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러한 인간의 깊은 문제를 인간들에게 알려 주는 임무를 신불로부터 수임(受任)했기 때문에, 매일 공즉실상의 기원을 대중(大衆)과 더불어 하여 나가고 있다.

8. 맺음 (結語)

이상 각장에 걸쳐서 설명한 것에 대하여 종교철학가나 종교의 전문가가 볼 때에는 여러가지로 이론(異論)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나는 학문으로서 이 책을 내 놓은 것은 아니고, 다만 안심입명(安心立命)으로 가는 하나의 도표(道標)가 되고자 간절하게 엮어 놓았을 따름이다.

이 책을 읽고, 인간이란 과연 이러한 존재이군, 신불이란 그러한 것이군 하고 우선 이해를 하고서 내가 설명한 그대로를 솔직하게 실행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 없이 행복해질 것이라 굳게 믿는 바이다.

나는 어려운 行 같은 것은 조금도 말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념(祈念)과 행법(行法)에 대해서만 써 놓은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인간 개개인에게는 반드시 수호령이 붙어서 가호(加護)하고 있으며, 기념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물음에 답하거나 또는 계도(啓導)하므로 그

수호령의 주의와 지도에 순종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간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믿는 것은 신불을 진실로 아는 첫걸음인 것이며, 인생가도(人生街道)를 걷는 데 있어 비상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신불과 함께 한다” “동행이인(同行二人)”이라고 하는 확신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불은 무형무상의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집착이다.

신불은 본래 형상이 없는 생명의 원리이긴 하지만, 그 작용은 때로는 인격신으로도 나타나며, 형상을 갖춘 인간으로서 우리들 앞에 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그 점, 수호령·수호신의 존재를 굳게 믿고 항상 수호령·수호신에게 감사하고 있노라면 그 때, 그 장소, 그 경우에 따라 신불의 자비는 여러 인간 또는 사물(事物)로 하여금 그 사람을 원조케 하는 것이다.

신앙은 어떤 한 가지 사물이나 형태에 붙잡힌다면 집착이 된다. 깨닫기 위해 육체를 방해물 취급을 하고 그것에 고통을 주고 훼손(毀傷)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도리어 육체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육체도 역시 신불이 필요에 따라 존재케 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 육체도 정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생활을 손상시키지 않고, 육체생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아울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육체세계에 있어서의 종교의 의의(意義)는 매우 희박해진다. 육체세계를 멸시하는 종교나 신앙은 이 현계(現界)를 구원할 수 없다.

보통의 육체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안심입명(安心立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선미(真善美)의 상념과 행동을 하면서 수호령, 수호신에 대한 기념(祈念)을 매일 거르지 않고 실행하여 나가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것이 신불아일체(神佛我一体)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와 인류를 위해 직접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수호령이나 수호신 외에도 나라를 지키는 국토신(国土神)이나 인류의 올바른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제신불(諸神佛)이 항상 지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는 모처럼 전생(前生)의 선인(善因)에 의해 높은 지위를 얻고 있으면서도, 아의아욕(我意我慾)에 홀려서 자타(自他)가 모두 전락하고 국가와 인류를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허덕이게 만든다. 지도자야말로 항상 생명의 원리를 추구(追求)하고, 신불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념(祈念)은 반드시 인류평화, 인류번영을 위해 자국(自國)이 자국의 본질을 발휘하여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하는 기념이어야 하며, 자기 나라만이 단물(甘汁)을 빨아 먹겠다고 하는 따위 상념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국의 멸망을 기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명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패망시키기 위해 신불의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기 위해 신불의 지혜가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 다수의 나라가 있고 다수의 민족이 있는데, 이것은 대신(大神)이 각직령(各直靈)으로 분파되고 직령이 각분령(各分靈)으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 각민족 개유(個有)의 독자성을 갖고 각자가 그 독특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신불의 뜻을 지상세계에 창조하려는 것인데도, 불행하게도 아직 세계는 신불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각국, 각민족이 각자, 그 지혜와 힘을 분산해서,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국가를 견고히 하고 수호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심

이 생기면 무비(武備)를 하고, 무비(武備)를 하고서는 싸우고, 싸워서 상처를 입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싸우곤 한다. 패자는 슬프며, 승자 또한 기뻐할 수 없는 현세적인 것이다.

이 인간세계가 각기 분산된 지혜와 힘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상대적인 승부만이 있을 뿐, 좀처럼 참된 신불의 세계, 조화의 세계는 출현할 수 없다. 그 근저(根柢)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힘을 억압하는 방향으로만 연구하고 있는 모습은 신불에 있어서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로간의 생명은 하나의 대생명(神佛)에 이어지는 것이며 서로간의 지혜와 힘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 있는 것이므로, 피차(彼此)의 지혜와 힘을 집적(集積)하면 바로 신불의 세계가 지상에 실현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실행이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이 일을 최초로 실행에 옮기는 나라와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신불의 연결을 확약한 것과도 같다.

이 행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앙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며, 그러기에 더더욱 신불의 진의(真意)

를 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다수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날은 언제인가, 그것은 그다지 먼 장래는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다.

문 답 편 (問答篇)

이 문답은 각처의 회합에서 제출된 문제 중에서 적당한 것을 발췌(拔萃)한 것이다.

문(1) : 인간의 탄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답 : 인간은 사후(死後), 그 사람의 상념과 행동에 따라 그 영혼의 유계(幽界)에 있어서의 생활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과거세와 현재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버린뒤의 영계 혹은 유계에서 갖가지 고난과 비애(悲哀) 또는 기쁨을 맛보면서 진화에 힘써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까지 경험을 쌓아 가다가 그 이상은 유계에서의 경험보다는 육체계의 생활에서 경험을 하는 편이 그 영혼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데보다 유리하다고 그 영혼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배령(고급령)이나 수호령이 생각한 경우, 육체계 탄생의 대기소(待機所)로 그 영혼이 옮겨져서 거기서 육체계의 탄생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 경우, 상당한 고급령 이외의 영혼은 그 의식(意識)이 잠재워져 버린다. 왜냐 하면, 의식이 있어 가지고는 유계의 미묘한 파동의 세계로부터 육체계의 조잡한 파동의 세계로 옮기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워서, 보통 정도의 영혼으로서는 그 고통을 견디 내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급영혼 중에는 의식을 가진 채,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모체(母體)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또는 갓난 아이로 탄생하자마자, 다시 영계로 되돌아가서 자기의 업인연을 완전히 해탈하여 버리는 영혼도 있다.

보통급(普通級)의 영혼은 대기소로 옮겨진 이래 유계에서의 기억을 잊어 버린 채, 현계(육체계)에 탄생하여 그 육체가 사망할 때까지 유계에서의 생활경험은 알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몇번인가 죽음에서 탄생으로, 탄생에서 죽음으로……를 되풀이하면서 업인연을 해탈해 가는 것이다.

그 탄생하는 영혼은 과거세에서 그 부모의 어느 한 쪽과 깊은 인연(관계)을 맺고 있는 영혼으로서, 혈연관계인 경우가 많으며, 그 상념의 주파수(周波數)가 유사하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는 그 용모 등이 그 어비이를 닮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혈연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그 상념의 주파수가 유사한 영혼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파수는 유사하더라도 그 영혼의 빛(光)의 크기랄지, 정화도(淨化度)의 차이랄지, 과거세부터의 경험의

차이 등에 따라서는 자녀가 그 어버이와는 천지의 차이가 있는 대인물(大人物)인 경우도 있으며, 또 소인물(小人物)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태교(胎敎)나 탄생후의 교육의 차이도 어버이와 자녀의 차이를 더해주는 것으로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유계의 대기소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육체계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함은 전술(前述)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 매우 소중한 일은 그 술한 영혼 중에는 가령 A부부라면, 그 A부부와 관계를 가진 몇 사람의 영혼이 그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육체계의 A부부의 성교시(性交時)의 마음의 파동의 고저(高低)나 상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순간의 A부부의 상념에 가장 적합한 영혼이 모체(母體)에 깃들게 되는 것이다. 가령, A부부가 청정(淸淨)한 기분으로 성교를 하는 경우에는 청정한 영혼이 깃들게 되며, 조잡하고 거칠은 사념을 가지고 성교에 임(臨)할 경우에는 역시 거칠고 사나운 영혼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선량하고 훌륭한 자녀를 바란다면 태교나 생후의 교육보다도 성교시의 부부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성교시의 날씨도 중요한 관계가 있으므로 불순(不順)한 기상(氣象)인